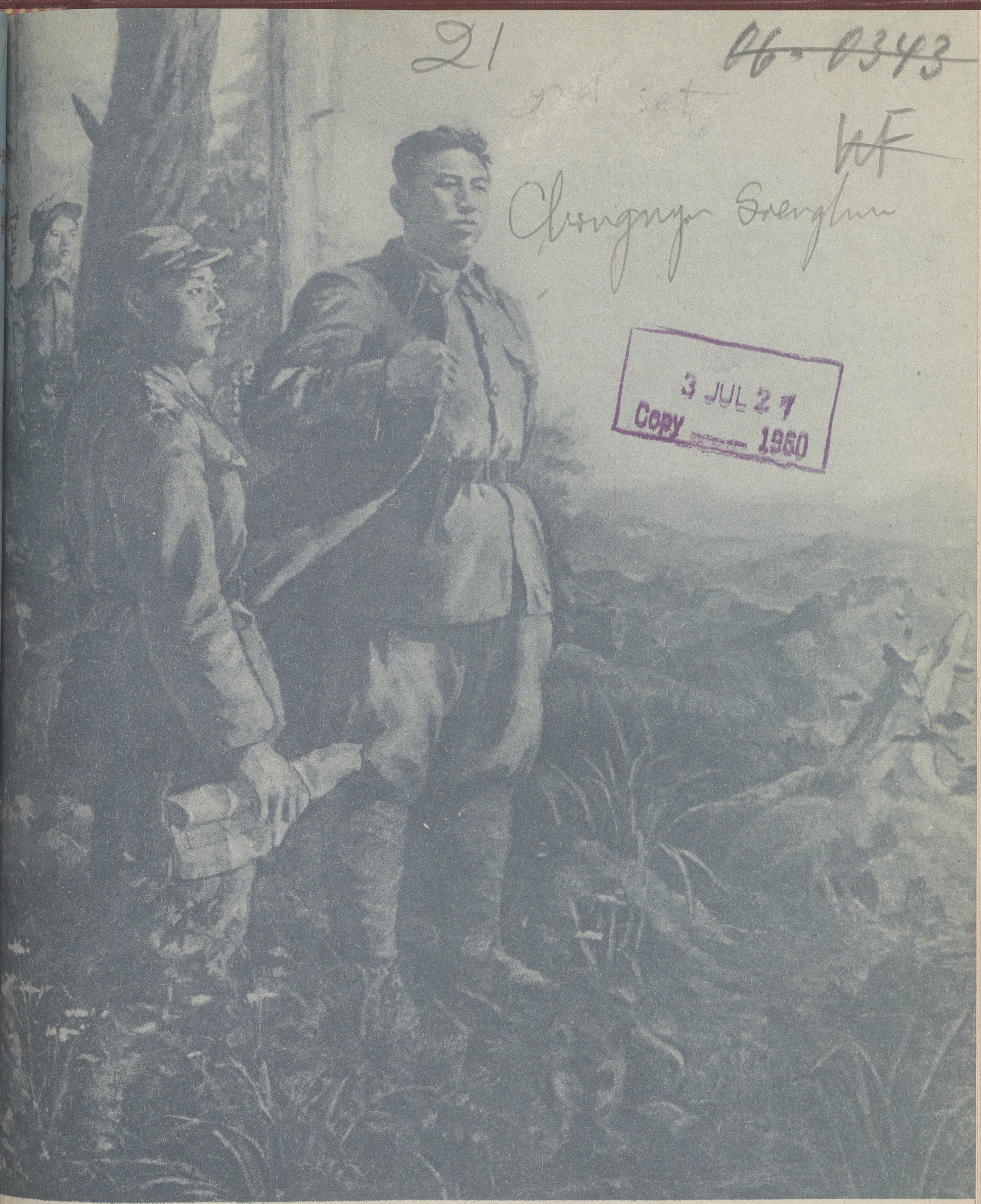


청년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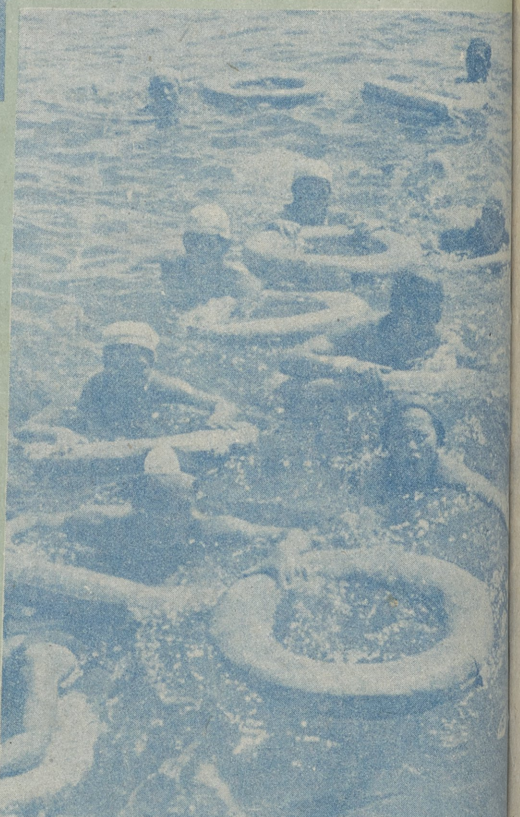
9
1959



←
축전 참가자들의
해상 행진

전국 청년 해양 축전

(1958년 8월 26일~28일)



↑ 단체 4인조 도하 경기 결승전



←
청진 제망 공장 써클원들이
출연한 군무 《바다'가 처녀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차 례

9
(120)
1959

편집 위원 리 홍종 (주필)
전 성근 박 춘실 지 장린
김 상민 송 선경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1959년 9월 1일 인쇄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1959년 9월 10일 발행
(값 30 전) ㄱ—80557 105, 000부 발행



인민에게 가장 인정 깊으신 분

정 옥 자

전쟁이 한창 가렬하던 1952년 2월, 나는 대동군 당 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가했을 때에 처음으로 수령님을 만나뵈였다. 그 때 수령님은 당원들 중에서 몇 사람을 접견하셨는데 거기에 나도 함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수령님을 뵙기 직전 농촌의 보통 녀성인 나의 가슴이 얼마나 울렁거렸겠는가 하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제 얼마 후이면 그이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뵙고 그이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나는 막 흥분되여 있었다.

그러다가 수령님을 뵙게 되였다.

수령께서는 책상에서 일어 나 인자하신 웃음으로 우리를 맞으시였다. 그이는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계셨다.

수령님은 우리에게 농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물으시였다. 수령께서는 상대자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야기를 다 하도록 중요한 대목에 가서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묻기도 하셨다. 그리하여 나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 마을의 사정을 죄 말씀드릴 수 있었다.

…우리 마을은 일제시 70 여 호가 모두 소작농이였던 탓에 워낙 토대가 약했다. 게다가 인민 군대의 전략적 후퇴 시기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의 야수적 만행과 략탈로 영농 토대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었다. 마을에는 남정 로력이 부족하였다. 축력도, 농기구도 적었다. 그러나 우리 녀성들은 전선에 나간 남편을 생각하며, 계급적 원쑤들을 증오하며 오직 전쟁 승리를 위한 일념으로 한사람 같이 일어나 영농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수령은 심각히 듣고 계시더니 우리 녀성들의 로력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우리 마을을 혁명 마을이라고 하시였다. 그리고 제일 어렵게 사는 집들의 형편도 자세히 물으시였다.

수령과의 담화는 나 자신의 가슴 속에서 뿐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에서 식량 증산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였다. 혁명 마을의 주인답게 남녀 로소가 한사람 같이 전선 지원에 일떠섰다. 가는곳마다에서 수령의 배려와 관심에 대한 이야기로 꽃이 피였다.

그러는데 하루는 문뜩 수령께서 우리 마을을 찾으시였다. 그것은 보리 이삭이 패기 시작한 5월이였다.

수령께서는 마을에 들어 오시자 농가

들부터 방문하시였다. 그런데 나는 수령께서 인민을 생각하는 그 깊으신 마음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평양에서 있은 담화에서 나는 타 순화 동무네를 비롯한 몇몇 집이 어렵게 산다고 한 번 말씀드렸는데 수령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부르시면서 그들의 살림 형편부터 물으시는 것이였다…

그때 나의 어머니는 병중에 있었다.

수령은 나에게 어머니가 언제부터 무슨 병으로 앓느냐 물으시고는 곧 의사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시였다. 그리고 수령께서는 구들에 올라 가 나의 어머니를 위안하시는 것이였다. 나의 어머니는 이 인정 많으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었다.

곧 의사가 오고 진찰이 시작되였다.

의사가 밖에 나왔을 때에 수령은 의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였다.

《할머니의 병이 인차 나을것 같소? 약을 드렸소?…》

나는 감격의 눈물이 앞서 돌아 섰다.

그리고 후에 나의 어머니는 바로 그이가 수령님이심을 알자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쭉 흘리시는 것이였다. 나는 어머니의 심정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다. 지난 세상을 천대와 멸시로 살아 오신 늙은 어머니의 심장이 어찌 수령의 태양처럼 크고 뜨거운 온정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수 있겠는가!

이 날 수령께서는 마을 농민들과 같이 보리 밭에 나가서 수확량을 친히 계산하시고 또 농량과 대여곡에 대하여 문의하시였다. 그리고 우리 녀성들을 향하여 농사짓는 법을 개선할 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혼자서 힘들게 농사일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집씩 한데 모여 일하면 일하기도 쉽고 많지 못한 축력과 농기구를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그 해 가을에 우리는 수령의 부르심을 받고 평양에 갔다. 농사 경험이 많은 두 아바이가 마을에서 같이 갔다.

수령께서는 아바이들을 손 잡아 자리에 앉히시고는 이렇게 물으시였다.

《금년 농사가 잘 되였습니까. 정당 수확고가 얼마입니까?…》

나는 수령의 이 첫 물음을 들으며 수령께서 우리 마을에 항시 얼마나 큰 관심을 돌리시는가를 다시 한 번 가슴 뜨거이 느꼈다.

그런데 이때 우스운 일이 벌어졌다.

아바이들은 서로 대답하라고 눈짓하며 망서리더니 어떻게 되여선지 두분이 거의 같이

《평당 580몬메 났습니다》하고 일제때 쓰던 대로 그냥 《몬메》라고 했던 것이다. 장내에는 웃음이 터졌다. 수령은 한참 웃으시다가 우리 나라 말로는 《몬메》를 돈이라고 부르며 또 3천 평을 한 정보라고 하는데 토지 면적이나 수확량을 측정할 때면 이에 기준한다고 정당 수확고에 대하여 알기 쉽게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친히 평당 수확고를 정당 수확고로 풀어 보시더니

《6톤 이상 났습니다. 6톤이 넘습니다!》하고 환성을 올리다싶이 하였다. 당시 정당 6톤이면 매우 높은 수확량이였던 것이다. 수령은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은 데 대하여 매우 기뻐하시면서 련속 물으시였다.

《이게 최고 수확량입니까. 명년에 더 낼 수 있습니까?》

《예 예, 더 낼 수 있구 말구요.》

아바이들은 신심에 차서 대답하였다.

마을에서는 아무리해도 금년처럼은 다수확을 못 내리라고 머리를 흔들던 아바이들이였는데 수령과의 담화시에 심경, 다량 시비등의 말을 듣고는 고무되여 사기가 오른 것이다. 그 이듬해 우리가 더 많은 수확을 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정전되는 해 8월에 우리는 36호의 농가로 농업 협동 조합을 조직하였다. 수령의 가르침 대로 여러집이 한데 모여 일하는 과정에 우리는 그것이 더 없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체험을 통하여 알았던 것이다.

우리가 협동 조합을 조직한 것을 제일 기뻐하신 것도 수령님이시다. 그 해 가을에 수령님은 다시 우리 마을을 찾으시였다. 변변치 못한 우리의 살림이였으나 (초기 조합에는 소 여덟 마리, 보섭 다섯개, 돼지 열 두 마리 외에 약간의 가축이 있었을 뿐이였다) 수령은 우리와 같이 그것을 돌아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셨던가! 비록 그때 우리의 전체 재산은 한 개 부농이 가지고 있는 쟁기에 맞먹는 것이였으나 우리에게는 체험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검열되였고 조만간에 무궁한 위력을 보이게 될 협동 경리가 있지 않는가! 그것으로 하여 우리는 무한히 힘이 났다.

수령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귀중한 조언을 우리에게 주시였다. 오리장에 가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중국에서 사양하는 식으로 논 판에 드러 내놓고 길러 보시오. 모이가 저절로 해결되고 또 오리들이 벌레를 잡노라고 땅을 뚜지기 때문에 농사에도 좋을 것입니다…》

수령은 돼지 우리에 가서서는 돼지 사양에 대하여 밭에 나가셨을 때에는 심경, 다량 시비…에 대하여 농사'군인 우리들로서도 생각이 안 가는 그런 것까지 세세히 가르쳐 주시였다.…

지금 우리는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 주택에서 살고 있다. 집집 마다 고성기가 들어 왔다. 마을 가운데에 있는 둔덕과 산'기슭에는 과수가 자라나고 있으며 넓은 양어장에서는 팔뚝 같은 물'고기들이 뛰놀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을에서는 행복과 환희가 넘쳐 흐르고 있다. 집집마다 웃음이요, 날마다 기쁨이다.

우리 마을의 이 모든 것은 수령님의 직접적인 배려와 관심 속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인민에게 가장 인정 깊고 인자하신 그이의 존귀하신 풍모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이가 가르치신 대로 당을 위하여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일하고 또 일할 것이다.





무한한 행복

◇전 병 설◇

혁명 동지!

그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한 이름인가. 어려운 혁명의 시련 속에서 굳게 맺어진 혁명의 전우를 불러 우리는 동지라 한다.

혁명 동지— 그것은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고 호소한 스승 맑스와 레닌의 사상에 무한히 충실하며 인류의 아름다운 희망인 공산주의 승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조국과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실한 혁명 전사들이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 동지들이 서로 사랑하며 단결하는 고상한 혁명적 품성은 바로 항일의 불'길 속에서 영광스러운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의 15 여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투쟁의 나날에 그 모범이 창조되였고 그 빛나는 전통이 이룩되였다.

항일 빨찌산들은 동지들과 생사 고락을 같이 하면서 식량이 떨어지면 자기는 굶더라도 비상용 식량을 전우들에게 나누어 주며 피복이 떨어지면 자기가 입던 옷이라도 벗어 주며 동지가 전투에서 부상 당하면 그를 업고 다니며 자기의 생명으로 전우의 위험을 막는 등 친형제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끼였다. 바로 이것이 상상하기 조차 힘든 모진 난관들도 모두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말해 주는 하나의 이야기를 여기에 적는다.

1935년의 여름이였다.

유격 근거지의 하나였던 안도현 처창즈는 적들의 포위와 《대토벌》 작전으로 하여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식량난이 혹심하였다. 그러나 근거지 인민들과 유격대원들은 한덩어리가 되여 이 모진 난관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다. 유격대원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면서도 적을 습격하여 인민들의 식량을 해결해 주어야 하였고 매일처럼 원쑤들을 맞받아 싸워야 하였다.

이 때 김 정숙 동지와 김 명화 동지는 처창즈에 주둔한 조선 인민 혁명군의 한 부대 지휘부 작식 대원으로 공작하고 있었다.

어느날 이른 새벽이였다. 이날도 적들은 근거지를 《토벌》하려고 새벽부터 밀려들었다. 유격대 지휘부는 곧 출전 준비를 하였다.

정숙 동지와 명화 어머니는 그들에게 멀건 물이 우러난 송기죽을 아침 식사라고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 맹숭맹숭한 송기죽일망정 그들은 이것을 달게 잡숫고 대원들을 데리고 방어 지역에로 떠나갔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간 지 얼마 후 한 대원이 정숙 동무에게로 달려 왔다. 그는 다짜고짜로 식량 주머니를 그의 앞에 불쑥 내밀며 《이것으로 저녁을 해드리시우. 그이들은 몹시 쇠약해 졌소》하고는 두말 없이 오던 길을 향하여 달음질치었다.

정숙 동지는 갑자기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냥 서고만 있다가 《동무!》하고 그 대원을 불렀다. 그러나 그 대원은 이미 산 굽인돌이를 돌아 가고 있었다.

주머니 속에는 밀'가루가 반사발이나 되게 들어 있었다. 그것을 한참 들여다 보기만 하던 정숙 동지는 명화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하였다.

《언젠가 비상미라고 내 준 것을 아직 보관하고들 있었던가 봐요. 자기들은 먹지 않고… 지휘관들을 대접하라는 군요.》

전사들의 지성이 스민 그 가루를 매만지며 명화 어머니는 말 없이 정숙 동지의 얼굴을 바라 보았다.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그의 량볼을 적시고 있었다. 해가 쨍쨍 내리 비치는 벼랑진 산'등성이에서 정숙 동지와 명화 어머니는 쉬임 없이 송기를 벗기고 있었다. 바구니로 하나 가득씩 벗겨야 저녁과 아침 끼니를 지을 수 있었다. 그런데 바구니에 송기를 채우자면 진종일 걸려야 했고 게다가 평평한 등판의 송기는 이미 다 벗기고 없어 발을 떼디기 어려운 벼랑진 등성이를 찾아 다니며 벗겨야 하였으므로 여간만 힘든 노릇이 아니였다.

그리고 그들은 굶주리였고 피곤해진 몸이 아닌가!

벼랑 턱에 구부정하게 선 소나무 기둥에 몸을 의지하고 송기를 벗기는 정숙 동지의 얼굴에선 진땀이 철철 흘렀다. 그는 심한 갈증과 허기증을 의지로 참으며 낫가락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러나 어찌하랴……

사정 없이 몸을 괴롭히는 졸음과 피곤! 정숙 동지는 어느 틈엔지 소나무 기둥을 붙든 채 잠이 들어 버렸다.

《정숙 동무!》 황급히 들려 오는 이 소리에 그는 깜짝 놀래여 눈을 떴다. 명화 어머니가 얼굴이 파랗게 질리여 그에게로 달려 왔다.

《어서 이리 와서 좀 누워요.》

명화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끌어 당기며 자기 무릎에 눕히려고 서두렀다. 정숙 동지는 몸 둘 바를 모르고 금시에 귀 밑이 빨개지였다.

다음 순간 그는 웃음 띤 얼굴로 명화 어머니를 쳐다보며 이런 말을 하였다.

《좋은 게 아니예요. 나는 꿈을 꾸었어요…》

《꿈을요? 대낮에 어떻게 꿈을…》 그러나 정숙 동지는 정말 꿈을 꾸었다.

《꿈이라기보다 늘 있는 일이지요 뭐. 식사 때가 되였는 데도 모두들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아요. 식량을 마련해 주지 않았으니 식사 준비를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그래서 나는 보란 듯이 풀국에 송기죽을 그들 앞에 내놓았지요. 그랬더니…》

정숙 동지는 더운 숨을 내쉬고 말을 이었다.

《모두들 나를 뚫어지게 쳐다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수고했소!〉하고 말하지요. 그 말 한 마디가 나를 어떻게나 감동시켰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알거예요… 나는 이런 꿈을 자주 보군 한답니다.》 명화 어머니는 정숙 동지의 마음을 잘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러나 해쓱해진 그의 얼굴은 극도로 피로했음을 말해 주고 있었다. 그러므로 명화 어머니는 그를 나무 그늘 아래서 쉬라고 당부하였다. 정숙 동지는 어머니의 당부에 이런 대답을 하였다.

《내가 할 일은 송기를 벗겨서 싸우는 유격대원들의 식사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내가 안 하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는 새로운 용기로 일하기 시작하며 《혁명가》를 불렀다.

그날 저녁이였다. 이들은 유격대원들이 돌아 오기 전에 식사 준비를 끝내였다. 이날 저녁의 식사는 《특식》이라고 할 수 있었다.

자꾸 두드려서 석면처럼 된 송기에다가 상부를 생각하여 대원들이 비상미를 털어서 보내 준 반 사발의 밀'가루를 섞어 쫄깃쫄깃해질 때까지 삶아서 쾌기떡을 만들었다. 거기에 콩'가루를 묻히였다. 콩'가루는 정숙 동지가 자기의 배낭과 명화 어머니의 배낭을 털어 얻어낸 것이였다. 이 《특식》을 만드느라고



그들은 조금도 앉을 사이 없이 돌아쳐였다. 그러는 중에도 《특식》을 들며 흐뭇해 할 전우들의 모습이 눈 앞에 어리여 그들은 조금도 힘든 줄을 모르고 일하였다. 동천에 달이 동동 떠올랐다.

지휘부가 자리잡은 귀틀집 마당에서는 모기'불이 타고, 그 옆에 지휘부 성원들이 앉아서 이야기 하고 있었다. 마당에는 속을 깔아 놓았다. 얼마 후 작식 대원들은 울렁거리는 가슴을 진정하며 《특식》을 담은 그릇을 마당에 날랐다. 그것을 본 지휘부 성원들은 의아해 하였다. 《이것이 웬 떡이요!?》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

《어서 잡숫기나 하세요. 우리는 뭐 그런 떡을 만들 줄 모른답니까》하고 정숙 동지가 말하였다. 이 말에 일동은 웃음을 터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 쾌기떡을 진수 성찬으로 여기면서 달고 맛 있게 들었다.

정숙 동지와 명화 어머니는 부엌 문'가에 기대여 서서 식사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나 달게, 맛 있게 식사하는 것이랴! 식사를 하면서 누가 또 이런 말을 했다.

《래일부터 내내 이런 진수 성찬만 만들어 주오. 참말 떡에 꿀을 묻힌들 아마 이 맛보다는 못할 거요.》 그래서 또 웃음 꽃이 피였다. 식사가 거의나 끝나갈 무렵이였다. 무엇을 생각했는지 정숙 동지는 부엌에 급히 들어 갔다. 이윽고 그는 자기의 몫으로 남겨 둔 쾌기떡을 들고 나왔다.

《이것은 여유로 남겨 둔 것이예요.》 그러고 그는 매 사람에게 조금씩 더 나눠 드리였다. 그러나 간부 동지들은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며 《수고들 했는데 동무들이나 더 드오》하는 것이였다. 그래도 정숙 동지는 《저는 많이 먹었어요》하면서 거듭 권하였기에 하는 수 없이 간부 동지들은 그것을 받았다. 그들은 정숙 동지와 명화 어머니가 식사를 한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들지는 않고 그것을 다시 대원들에게 돌리였다. 대원들에게 돌리는 떡 그릇에는 명화 어머니의 몫까지 들어 있었다.

이리하여 정숙 동지와 명화 어머니는 《특식》의 맛을 모르고 아침 식사로 준비한 송기죽물로 저녁 요기를 하였다. 정숙 동지와 명화 어머니는 잠자리에 누웠다. 달빛이 창문으로 비쳐 들었다. 둘은 묵묵히 창문을 통하여 바라 보이는 밤 하늘을 지켜 보았다.

얼마 후 명화 어머니가 속삭이듯 말하였다. 《정숙 동무, 배고프지 않아요》정숙 동지는 한참이나 가만히 있다가 조용조용 대답하였다.

《동지들이 웃는 것을 보니 배고픈 생각이 없어 졌어요… 뭐 먹어서만 배가 부를가요, 먹지 않고라도 동지들이 내내 그처럼 웃음 꽃을 피워만 준다면 나는 백 날을 먹지 않고라도 배고프지 않을 것 같아요.》

《정숙 동무! 참 나도 그런 심정이라오.》 하늘의 뭇별은 더욱 빛나게 반짝이고 있었다. 정숙 동지는 그 별들을 찬찬히 바라 보면서 크게 숨을 내쉬였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였다.

《명화 어머니! 지금도 그 웃음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나는 오늘 밥이 무한히 행복해요!》

달 세계에 붉은기 휘날린다

쏘련의 제 2 우주 로케트는 9월 14일 6시 02분 24초(평양 시간)에 달 표면에 도달하였다. 지구로부터 다른 천체에로의 우주 비행이 력사상 처음으로 실현되였다. 이리하여 우주 공간 연구에서 새로운 페지가 열려졌다.

(따스의 보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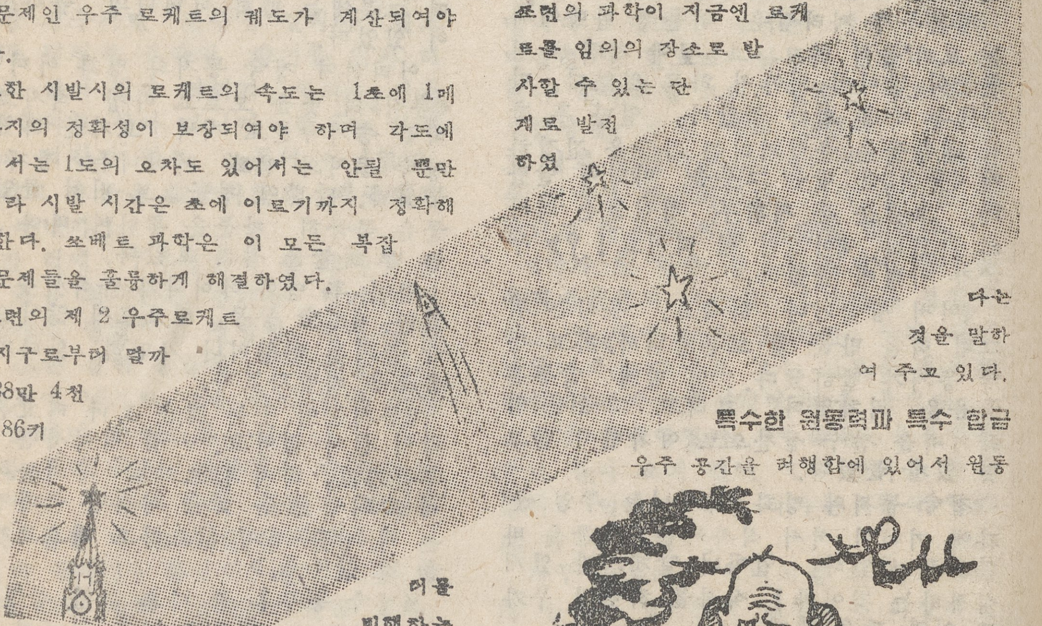
과학원 물리 수학 연구소 물리 수학 학사

신 상국의 담화

놀라운 정확성

우주 공간을 질풍 같이 달리는 지구 우에서 역시 우주 공간을 달리고 있는 달을 명중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문제가 해결 되려면 아주 복잡한 천체 력학적 및 수학적 문제인 우주 로케트의 궤도가 계산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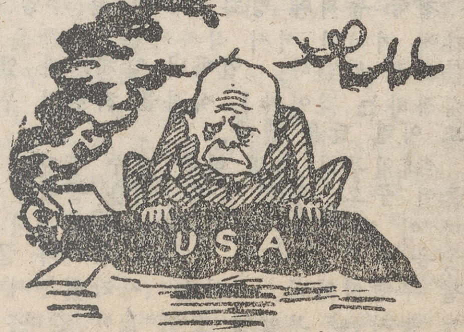
또한 시발시의 로케트의 속도는 1초에 1메터까지의 정확성이 보장되여야 하며 각도에 있어서는 1도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시발 시간은 초에 이르기까지 정확해야 한다. 쏘베트 과학은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훌륭하게 해결하였다.



쏘련의 제 2 우주로케트는 지구로부터 달까지 38만 4천 3백 86키로메터를 비행하는 데 예정된 시간 보다 단 2분 36초의 차로서 달의 《선명해》 동쪽에 도달하였다. 더욱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이 우주 로케트에는 유도 체계가 리용되었는 데 여기엔 우주 로케트의 마지막 계단까지 이르는 전체 계단에 계산된 파라메터를 따라 정확히 비행할 수 있게 원격 조종 체계의 작용이 적용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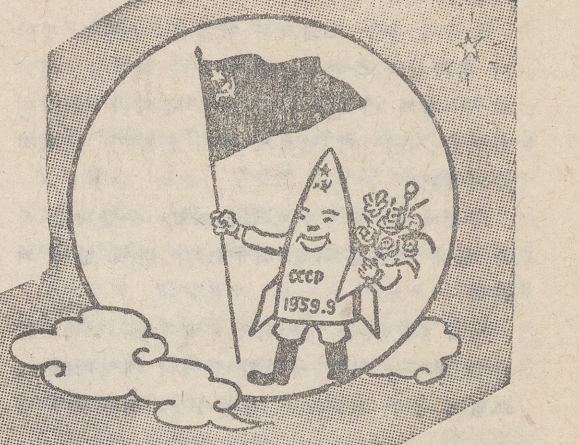
이처럼 쏘련의 제 2 우주 로케트가 예정된 시간에 그리고 예정된 장소까지 정확히 유도되여 도달하였다는 사실은 쏘련의 과학이 지금엔 로케트를 임의의 장소로 발사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특수한 원동력과 특수 합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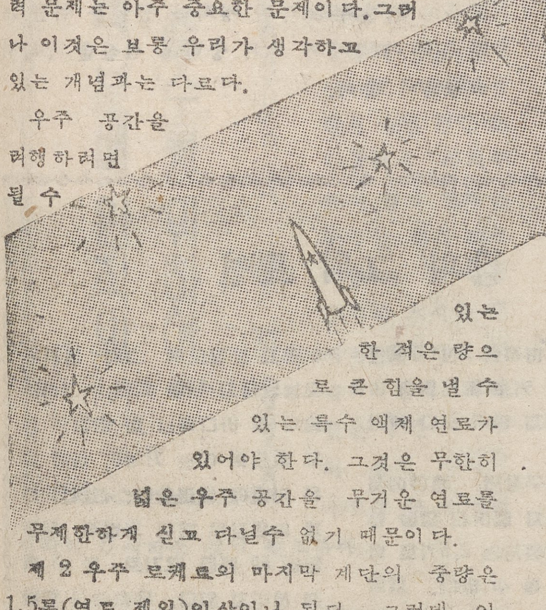


우주 공간을 려행함에 있어서 원동

인간에 의한 우주 공간의 연구와 정복에 있어서 새로운 중요한 단계로 되는 쏘련의 두번째 우주 로케트의 성과적 발사는 쏘베트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그의 위력의 시위로 되며 세계 평화 위업에 대한 거대한 기여로 되며 공산주의 승리의 위대한 상징으로 됩니다. (김 일성)



력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는 다르다.



우주 공간을 려행하려면 될 수 있는 한 적은 량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는 특수 액체 연료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무한히 넓은 우주 공간을 무거운 연료를 무제한하게 싣고 다닐수 없기 때문이다.

제 2 우주 로케트의 마지막 계단의 중량은 1,5톤(연료 제외)이상이나 된다. 그런데 이 육중한 우주 로케트가 제 2 우주 속도를 내려면 적어도 30만 키로와트의 출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 필요한 연료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연료는 폭발성이 많거나 열이 가해지면 로케트의 재료들은 녹아 버릴 수 있다. 바로 세계 최고봉인 쏘련의 과학은 이 특수한 원동력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 분야에서도 멀리 뒤떨어지고 있다.

제 2 우주 로케트의 발사로 끝없는 우주 공간의 려행의 첫 다리를 놓은 쏘베트 과학 기술의 위력은 우주 로케트의 원동기와 동체를 만든 금속 재료가 특수 합금으로 이루어졌다는데도 있다.

로케트가 우주 공간을 비행하려면 연료가 타는 연료실의 높은 온도에 견디여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케트의 동체가 공기와의 마찰에서 오는 고온에서나 공기 없는 우주 공간에서의 저온에서도 견디여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주 먼지와 부닥쳤을 때에도 부서지지 않게끔 강도가 보장되여 있어야 한다.

미국의 로케트가 매번 제 궤도에도 오르지 못하고 폭파되고 만 리유의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데도 기인된다.

다만 위대한 쏘베트 과학 기술만이 이처럼 모든 조건에 견디여 낼 수 있는 특수 합금 문제를 해결하였다.

제 2 우주 로케트의 성공적 발사에 이르기까지에는 수학, 물리, 천문학, 화학, 연료, 야금, 라지오 공학, 기계학 등 심지어 한 개 나사를 죄우는 일에까지 쏘베트 과학의 모든 성과들이 집약적으로 동원되였다.

이것은 오직 인류의 무한한 번영을 위하여 일하는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만 가능한 일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생각조차 못할 일이다.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위대한 승리

쏘련이 우주 정복 분야에서 달성하고 있는 이 세계사적 승리는 다만 과학 분야에서만

거둔 성과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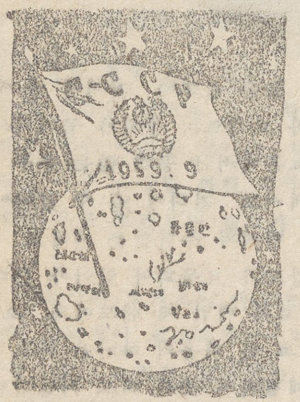
쏘련의 우주 로케트— 이것은 쏘베트 과학의 세계사적 승리일뿐만 아니라 쏘련을 선두로 한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불패의 위력의 강대한 시위이며 전세계 평화 력량의 결정적 승리이다.

허풍에 찬 자만과 우월감으로 우쭐대던 미국 침략 계층은 혀를 깨무는 수 밖에 없게 되였다.

세계 《최강》을 자처하던 미국의 강대성에 관한 신화는 이제 영원히 철저히 매장되였다. 쏘련의 우주 로케트가 달에까지 정확하게 명중한 이때에 제국주의 침략 계층은 이미 오래전에 파산된 그의 《힘의 립장에 선》 정책에 대하여 더는 운운할 여지조차 없게 되였다.

달까지의 최초의 비행이 쏘련 내각 수상 엔. 에스. 흐루쑈브 동지의 미국 방문과 세계 최초의 쏘련 원자 쇄빙선 《레닌》호가 조선소를 떠나 항행의 길에 들어 선 것과 일치되였다는 것은 더욱 의의가 크다.

쏘련의 우주 로케트의 달에로의 도달은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과 그의 승리의 신심을 무한히 고무하여 준다.



달과 그의 표면

달은 지구의 주위를 도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이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평균 거리는 38만 4천 386키로 메터인데 최고 거리는 40만 6천 670키로 메터이고 최단 거리는 35만 6천 400키로 메터이다. 최신 렬차로는 달까지 약 1년이 걸리며 《뚜-104》로도 20 주야를 가야 한다. 그런데 쏘련의 제 2 우주 로케트는 불과 수십 시간에 이 거리를 도달하였다.

달의 직경은 3천 476키로 메터이며 달 표면적은 3천 796만 5천 500 평방 키로 메터인데 이는 아세아 전체 면적 보다 약간 좁다.

인간은 지구상의 평야에서 5키로 메터까지 떨어진 앞을 볼 수 있지만 달에서는 2,5키로 메터 앞 밖에 볼 수 없다. 달의 용적은 지구의 용적의 15분의 1이다.

달은 약 27 주야 7시간 43분 기간에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돈다. 이 기간에 달은 241만 4천 키로 메터의 거리를 통과하게 된다. 이는 달의 평균 초속이 한키로 메터 이상이며 한 시간에 3천 680 키로 메터를 통과함을 의미한다.

달 표면에는 수 많은 밝고 검은 점들이 있다. 우리는 이 검은 점을 한때는 바다 또는 태양이라고 불렀으며 그의 명칭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 그러나 달의 이 바다에는 한 방울의 물도 없으며 이는 기복이 심한 넓은 저지에 불과하다. 현대의 천체 망원경은 달의 개별적 부분들을 50 메터 크기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우리에게 향한 달반구에서 이 바다들은 20%를 차지하고 있다.

달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남극 부근의 《레이브니쯔》산맥에 있는 데 높이는 9천 메터이다. 달의 광도는 태양에 비하면 50 만 분의 1 밖에 안된다.

달로부터 보는 별세계는 지구에서 보는 것과 류사하다. 달에서는 태양이 천천히 수평선에서 올라오며 지구는 밤하늘에서 불변한 위치에 놓여 있다.

철저한 준수를 위하여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의

☆ 김 성 진 ☆

지난 8월에 진행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농촌에서 사회주의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며 농업 생산의 가일층의 발전을 촉진시킬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사회주의적 분배 원칙을 준수할 것을 교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전체 청년들은 우선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본질과 그 의의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분배하는 것은 사회주의 하에서 유일하게 정확한 분배 원칙이다.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하여는 생활 자료를 생산하며 그것을 분배하여야 한다. 그런데 생산물의 분배는 생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얼마나 생산되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생산 수단이 (공장, 운수, 체신, 은행, 토지, 산림 등등) 자본가, 지주의 사적 소유로 되고 있는 자본주의 하에서는 로동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자본에 의하여 분배가 진행된다. 말하자면 생산 수단을 독차지한 착취 계급은 로동하지 않으면서도 생산물의 많은 몫을 차지하는 반면에 피땀을 흘려 로동하는 근로자들은 자본가 지주에게 혹독한 착취를 당하여 굶주림과 헐벗음을 면치 못한다. 이와 같이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관계가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분배도 불평등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하에서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일체 생산 수단이 인민의 소유로 되여 있다. 근로자들은 생산 수단의 주인이며 나라의 주인이다. 전체 인민들은 생산 수단에 대하여 다 같이 평등하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 말라!》는 것이 원칙으로 된다. 따라서 사회주의 하에서는 분배가 자본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로동에 의하여 실시된다. 여기서는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로동만이 매 개인의 분배 몫의 척도로 된다.

그러면 로동에 의한 분배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개인 소비를 위한 분배 몫도 많이 받는 원칙, 즉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하여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분배 원칙이란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에 따라 분배 받는 원칙이다.

그렇다면 생산 수단이 사회적 소유로된 이상 《각자에게는 능력에 따라 각자는 수요에 따라》라는 공산주의 분배 원칙을 실시하면 더 좋을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분배의 형태와 원칙은 사람들의 주관적 욕망대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맑스는 말씀하시기를 인민의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공산주의는 모든 물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올때 만이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 생산력 발전 속도가 빠르며 이에 따라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도 날로 높아 간다. 이것은 우리들 자신이 생활을 통하여 잘 체험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는 아직도 인민들의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지 못한 단계다. 여기서는 《각자는 수요에 따라》라는 공산주의 분배 원칙이 실시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방면으로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아직도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사상 잔재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로동에 있어서 완전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즉 로동이 사람들의 습관으로 생활상 제 1 차적 요구로 되여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간의 차이, 숙련 로동과 미 숙련 로동간의 본질적 차이가 남아 있다.

이러한 사정은 사회주의 단계에 있어서 로동에 의한 분배 원칙을 실시하는 것이 유일하게 정당한 것임을 증명하여 준다.

사회주의 분배 원칙은 생산력 발전을 추동한다.

사회주의 일쎄으로 전변된 우리 나라에서 로동에 의한 분배 원칙의 철저한 실시는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많은 분배몫이 차례지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을 높이며 생산력 발전을 촉진시킨다.

이와 반대로 황해도와 강원도의 일부 협동조합들에서와 같이 로동의 량과 질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분배한다면 조합원들이 일에 흥미를 가질 수 없으며 조합 공동 경리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수 없다.

례컨대 황주군 상점 농업 협동 조합 에서와 같이 힘든 일과 쉬운 일, 기술 로동과 막 로동, 일을 잘 하는 사람과 건달을 부리는 사람 등을 가리지 않고 밀몰아 한 공수씩 주었다. 결과는 조합원들의 가동률이 2월에는 50%, 6, 7월에는 85%로, 로동 생산 능률은 작업 정량의 72%에 불과하였다.

보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위반한다면 조합원들의 생산 의욕을 마비시키며 일을 태만하며 힘든 일에서 물러서는 건달'군 습성을 조장시킬 뿐만 아니라 로동 생산 능률을 저하시킨다.

어떤 일'군들 중에는 평균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마치 평등한 일인 것 같이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평등이 아니며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소부르조아적 평균주의며 심한 불평등이다.

우리가 말하는 평등이란 사회적 소유로된 생산 수단에 대한 전체 근로 인민의 평등이며 누구나가 평등한 립장에서 국가 정치 생활과 로동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평균주의란 소자산 계급의 개인 리기주의적 립장에서 출발하는 소부르조아적 사상의 표현이다. 소부르조아적 평균주의는 사회주의를 망탕 먹고 쓰며 무엇이든지 다 평등하여야 하며 지어는 개인의 생활, 취미, 요구까지도 반드시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일을 잘했건 못했건 분배 몫은 다 같아야 한다는 것은 결국 남의 등에 업히여 놀고 먹자는 개인 리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해 보라!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그만한 보수를 받을때 그 사람은 자기의 일에 대하여 흥미를 가질 것이며 자기가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하여 힘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에 대한 창발성을 계발시키며 기술 및 문화 수준을 급속히 향상시키는 추동력으로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물질적 관심성을 자극하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준수는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로동에 의한 분배 원칙의 정확한 실시는 또한 근로자들을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로 교양하며 집단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데 유력한 수단으로 된다.

많이 일하는 사람에게 많이 분배하는 원칙을 실시하면 근로자들에게 개인 리기주의 사상을 조장시키지 않겠는가? 이것은 집단주의 사상 교양과 모순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사회주의 사회에서 개인적 리익은 사회적 리익과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들이 사회에 더 많은 리익을 주면 줄수록 그만치 개인의 물질 문화 생활도 더 높아 가는 것이다. 이 점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 비한 사회주의 우월성의 하나이다.

또한 집단 속에서의 생산 활동은 사람들에게 일을 힘껏 성실히하는 것이 곧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이라는 자각을 불러 일으키며 로동에 대한, 집단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배양시킨다.

사람은 로동을 통하여 자연을 개조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상 의식도 개조하는 것이다.

일에는 후물이



먹을 일엔 선들이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는 숙련 로동과 미숙련 로동간의 차이를 엄격히 구별하며, 동일한 로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보수를 지불하는 원칙을 관철시켜야 한다.

일을 많이한 사람이나 적게한 사람이나 다 같은 로력일을 주며, 안면 관계와 기분에 따라 로력일을 《평가》하는 현상은 반드시 근절되여야 한다. 로력일 계산은 등급별 작업 정량에 기초하여 도급제를 실시하며 로력일 계산을 제때에 하여 조합원들에 알려 줌으로써 조합원들의 로력일을 정확히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일부 조합들에서와 같이 등급별 작업 정량과, 작업을 수행한 질과는 관계 없이 성별, 년령별에 의하여 무원칙하게 로력일을 계산하는 현상들과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입 분배에서 축적과 소비에 다 같이 주의를 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합원들의 당면 생활을 돌보지 않고 축적에만 치중하거나 조합의 장래 발전을 생각하지 않고 생기는 대로 먹고 보자는 옳지 못한 경향은 그 어느 것이나 조합 공동 경리 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준다.

축적은 래일의 행복을 위한 분배요, 소비는 오늘의 분배이다. 김 일성 동지가 가르치신 바와 같이 **《축적과 소비에 다 같이 고려를 돌리며 조합원들의 생활의 향상에 따라 점차적으로 축적을 더 증가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그래야만이 근로자들이 생산의 결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개인적 리익과 사회적 리익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생활의 거울

《단체 책임자》

평양—만포 행 렬차의 승차권을 팔기 시작하였다. 려객들은 질서 정연하게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였다.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단체 책임자요. 먼즘 차표를 사야겠소》 하고 떠들면서 려객들을 밀치며 매표구로 나가는 한 청년이 있었다.

《단체 매표구가 따로 있어요. 그리로 가십시요.》하고 한 아주머니가 그를 멈춰 세우고 이렇게 대 주었다.

그러나 청년은 단체 매표구로 갈 대신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하고 크게 소리치면서 아주머니에게 덤벼들었다. 진상은 인차 드러나고 말았다.

청년은 평양 목재 용기 공장에서 일하는 민청원 홍 선응이다. 얼마전에 농촌에서 놀려 온 그의 누이 동생은 이날 돌아 가게 되여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일찍부터 역으로 나가려고 서둘렀다. 이것을 본 홍 선응은

《이 촌바우야! 차표 한장 못 살가봐 그야단이냐 ? 다 방법이 있으니 천천히 차비해라.》하고 누이 동생을 나무랐다

그들은 렬차 출발 시간이 박두해서야 역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홍 선응은 조금도 당황해 하지 않았다. 그는 단체 책임자로 가장하고 매표구로 나가면서 려객들도 속아넘어 가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가 공중도덕을 무시하고 누이 동생에게 큰 소리친 그 《방법》이란 바로 이렇게 《현명》한 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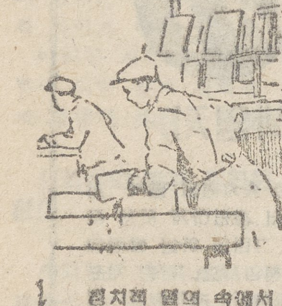
(본사 기자)

× ×

민청 단체들은 민청원들 속에서 발로되는 개인 리기주의적이며 평균주의적 사상 경향과 날카롭게 투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민청 단체들에서는 로동에 의한 분배 원칙의 본질과 의의를 민청원들 속에 해설 침투시키는 사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낡은 자본주의 사상 잔재의 표현인 건달 습성, 로동을 천시하며 쉬운 일만 찾으려는 현상들과 투쟁하며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로, 집단주의 사상으로 민청원들을 교양 훈련하는 데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옳게 결부시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 지방 산업 및 생산 협동 조합 부문 열성자 대회를 앞두고



낡은 사상 잔재에 비판의 화력을

우리 조합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지금 전국 지방 산업 및 생산 협동 조합 부문 열성자 대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서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고 있다.

공업 관리 체계를 개편하며 지방 공업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한 최근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 결정 실행 행정은 우리 조합 민청원들과 청년들에게 당적 사상 체계를 확고히 수립하며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모두다 일편단심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헌신 분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때 우리 조합내 일부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는 《같은 값이면 분홍 치마라고 일할 바에야 큰 기업소에서 일하는 게 낫지, 이거참 시시해서 못해 먹겠다.》고 하면서 딴 데로 옮겨 갈 것을 꿈꾸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조합을 옛날 개인 상공업자들이 경영하던 그런 기업체처럼 생각하고 자신들을 사회주의 건설자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그들은 조합에 튼튼히 자리잡을 수 없었으며 일이 손에 붙지 않아서 로동에 성실하게 참가할 수 없었다.

조합 민청 단체는 이런 경향을 수수방관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사회주의 건설자로서의 영예감을 높여주기 위하여 다양한 조직 정치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보고와 강연, 해설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 개인 상공업자들이 어떻게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였으며 이를 위한 우리 당 정책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인식시켰다. 또한 국영 공업 경리와 생산 협동 조합 경리는 비록 형태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그것은 곧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단일한 사회주의적 경리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뿐만 아니라 지방 산업 및 생산 협동 조합 경리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을 널리 해설 선전하였다. 이런 결과 그들은 자신을 영예로운 사회주의 건설자로 알게 되였으며 또 당에 의하여 열려진 생산 협동 경리의 휘황한 앞날을 희망찬 눈으로 바라다 보면서 조합에 튼튼히 뿌리 박게 되였다.

지난 시기 조합 내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는 극심한 개인 리기주의가 있었다. 가구 직장에서 일하는 강 영채 동무는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였다. 그는 병을 빙자하여 장기간 조합에 나오지 않으면서 남몰래 가구들을 청부맡아 돈 벌이를 일삼고 있었다. 개인 리기주의에 눈이 어두운 이런 경향은 다른 형태로도 적지 않게 발로되고 있었다. 이들은 낡은 사회의 수공업자들에게 고유한 착취자적 근성에서 깨끗이 벗어나지 못한 동무들이였다.

조합 민청 단체는 이를 청산하기 위하여 그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 사업을 강화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연설 《공산주의 교양에 관하여》를 해설 침투시킨 후 그 사상에 기초하여 개인 리기주의 사상 잔재의 표현들을 반대하며 집단주의 사상을 배양하기 위한 민청 총회를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예술 써클을 발동시켜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의 인간 호상 간에 작용하는 승냥이 법칙을 규탄하며 우리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그 제도하에서의 아름다운 인간 관계를 보여주는 등 교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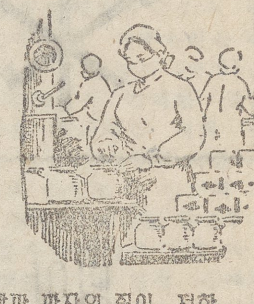
조합 민청 단체가 취한 이 모든 조직 정치 사업의 결과 우리 조합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정치적 열성은 매우 높아졌다. 이리하여 그들 속에서는 많은 창발적 의견들이 제기되여 약간의 공정을 제외한 전 작업 공정을 기계화 및 자동화하고 품종을 300 여 종 이상으로 확대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우리 조합 민청원들과 조합원들 속에는 아직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들이 적지 않았다. 일부 동무들은 될수록 남보다 쉬운 일만 하려고 한다. 또한 일부 동무들은 남보다 일을 적게 하고도 보수는 많이 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부린다. 뿐만 아니라 동지 호상간에 진정으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고상한 도덕적 품성이 희박한 동무들도 있다. 그리고 조합에 갓 들어 온 일부 동무들은 아직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생활 양식 면에서도 우리에게는 결함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조합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확립하기 위한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고 있다. 이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지방 공업 발전을 위한 당의 기대에 우리 조합이 보답할 수 없다. 때문에 조합 민청 단체는 지금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사상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붉은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금번 전국 지방 산업 및 생산 협동 조합 부문 열성자 대회가 제시하는 영예로운 전투적 과업 수행의 길로 힘차게 나갈 것이다.

평양시 목재 일용품 생산 협동 조합
초급 민청 단체 위원장 김 계권

모두다 기술 기능 수준을 한등급씩 높이기 위하여



우리 공장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전국 지방 산업 및 생산 협동 조합 부문 열성자 대회를 우리 공장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고 있다.

공장의 대부분의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 이후 새로 진출한 젊은 녀성들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품종을 확대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자면 이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초급 민청 단체는 28명의 민청원들로 기술 연구 크루쇼크를 조직하고 매주 목요일에 기술 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런 데로부터 민청원들 속에서 기술 학습 분위기는 점차 높아 갔다. 그러나 일부 가정 부인 민청원들 속에는 《이제 기술을 배워서 언제 써먹겠는가?》 하면서 기술 학습에 잘 참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기술은 어려운 것이여서 자기들처럼 〈무식한〉 녀성들은 애써도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초급 민청 단체는 그들이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에 포로되여 있다는 것을 포착하고 녀성들도 능히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자신심을 주기 위하여 일련의 조직 정치 사업을 전개하였다. 즉 과거에 무식했던 녀성들이 오늘 우수한 기술자로 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계획적으로 들려 주었다. 뿐만 아니라 녀성 로력 혁신자들과의 상봉을 조직하여 그들의 기술 습득 체험을 소개 받게 하였다. 그리고 기술이 락후한 동무들에 대한 개별적 책임제를 실시하고 작업 현장에서나 합숙에서 일상적으로 그들을 가르쳤다. 한편 월 3회 이상의 기술 연구 발표회를 진행하여 경험을 일반화하며 동시에 기술 학습의 열성을 더욱 제고시켰다. 초급 민청 단체는 배운 지식들을 실제 생산에 도입하도록 힘썼다. 그리하여 민청원들 속에서 배운 기술 지식을 한 가지씩 생산에 도입해 보는 과정에서 창발적 의견이 제기되여 생산에 도입되였다.

칠 영해 동무는 원료를 합리적으로 리용만 한다면 품종을 확대할 수 있다는 데 착안하였다. 그후 고심한 끝에 40도 가량의 열을 가열하여 종전처럼 두부를 생산하고도 콩에서 7% 이상의 기름을 짜낼 수 있는 《평압 착유법》을 창안하였다. 이 창안은 두부 생산에 예견된 콩에서만 년 17톤 689 키로 그람의 콩 기름을 얻어 내게 하였다.

이 밖에도 차 옥근 동무의 발기로 소성로를 립별식 또는 2단식으로 개조하였다. 그리하여 년 31,000 여 로력과 자재 63톤, 석탄 427톤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예비를 찾아 내게 하였다. 또한 옥수수 가루 배합률을 높인다면 빵과 과자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표면이 터서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들의 고집을 물리치고 종전의 평균 배합 비률 25%를 36.8%~100%까지 제고할 수 있는 기술적 대책을 창안했다. 이외에도 《흐름식》 작업 방법, 각종 절단기, 분쇄기, 무우 세척기 등을 창안함으로써 부족된 로력 문제를 타개할 수 있었으며 공장의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는 데 이바지 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작년 상반년에 비하여 금년 상반년에는 234% 이상 품종을 확대하였다. 이런 성과는 어제까지 가정 부인이였던 23 명의 민청원들이 오늘은 당당한 5급 이상의 기능공으로 장성된 사실과 깊이 련관되어 있다. 공업 관리 조직을 개편하며 지방 공업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한 최근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확대 회의 결정은 우리를 무한히 고무하여 주고 있다. 앞으로 우리 공장의 기술 력량과 기술적 장비는 더 강화되며 원료 원천과 인적, 물질적 내부 원천은 더 적극적으로 탐구 리용될 것이다. 이런 전망은 우리 공장 민청원들과 청년들에게 기술 기능 수준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급속히 강화 발전되여 가는 우리 공장의 기계 설비들을 우리의 손으로 다룰 수 없게 되며 또 제품의 질도 높일 수 없고 품종도 확대될 수 없다. 이런 데로부터 초급 민청 단체는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전국 지방 산업 및 생산 협동 조합 부문 열성자 대회를 맞이하여 모두다 기술 기능 수준을 한등급씩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기술 연구 크루쇼크를 재정비하는 동시에 공장 실험실에 민청원들을 배치하고 실제 식료품 실험 가공 사업을 직접 진행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일부 민청원들 속에서는 김치 담구기 강습을 실시하는 한편 공장, 아빠트에 파견하여 인민들의 구미에 맞는 김치 담구기를 위한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모든 조치들은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기초 우에서 금년에 직접 공장, 아빠트 부근에서 김치를 생산함으로써 부족한 로력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키로당 김치 원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평양시 지방 산업 식료 가공 공장
초급 민청 단체 위원장 허 승철

정치 강좌

조선로동당 (7)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어떻게 투쟁하여 왔는가

당의 통일과 단결의 강화는 우리 혁명 승리의 결정적 담보

모든 혁명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기본 열쇠는 바로 이 혁명을 지도하는 당이 준비되여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다.

맑스-레닌주의는 로동 계급의 당은 전 당의 의지 및 행동상 통일과 강철 같은 규률성이 보장된 레닌적 당으로 될때만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국제 로동 운동의 경험은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이 파괴되면 당 자체가 파멸 한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 당 건설과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문제로 된다.

우리 당은 조선 근로 대중의 선봉대이며 우리 혁명의 참모부이다. 우리 당의 당면 목적은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우리 당의 이 숭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당 자체를 조직 사상적으로 통일되고 단결된 전투적 부대로 강화하여야 한다.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 승리의 결정적 담보이다.

조선 혁명의 영광스러운 전위대인 우리 당은 항상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문제에 심중한 주의를 돌려 왔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당의 레닌적 조직 원칙과 생활 규범을 지침으로 하여 각종 반당 종파 분자, 개인 영웅주의자, 지방 할거주의자 및 기타 분파적 요소들을 반대하여 원칙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이와 같은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은 통일되고 단결된 불패의 강력한 당으로 발전 강화 되였으며 혁명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였다.

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 행정에서 특히 종파의 여독을 청산하는 투쟁이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그것은 해방 전 우리 나라 로동 운동에 심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가 통일적 당이 없었기 때문에 당내 투쟁을 통하여 극복되지 못하고 존속되여 오다가 8. 15 해방 후 새로 창건된 우리 당내에 또 다시 나타나게 된 사실과 관련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20년 대 우리 나라 로동 운동내에 잠입한 《화요파》, 《서울파》, 《상해파》, 《북풍파》, 《엠. 엘파》 등 종파 분자들은 당을 파괴하고 로동 운동을 말아 먹었다. 그러나 해방 전에 통일적인 로동 계급의 당이 존속되지 못하였던 결과로 우리 나라 혁명 력량은 종파를 완전히 청산할 수 없었다. 따라서 과거 종파에 가담하였거나 또는 그 영향을 받았던 자들이 해방후 당내에 잠입하여 종파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조선 로동 운동에서 과거로부터 물려 받은 이 종파의 여독을 청산하는 것은 8. 15 해방후 우리 세대에 와서 비로소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력사적인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오늘 우리 당 앞에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을 촉진시켜야 할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 과업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업의 성과적 해결은 오직 조선 혁명의 참모부인 우리 당 대렬의 철석 같은 통일과 단결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현시기 우리 당은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일층 강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전당 앞에 제시하고 있다.

당 창건과 평화적 건설 시기에 있어서 당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

해방 후 우리 당이 걸어 온 력사는 당이 우리 혁명의 가장 어려운 시기마다 머리를 쳐들고 당과 혁명을 반대하여 나선 각종 종파 분자들의 책동을 매 걸음마다 제때에 폭로 분쇄함으로써 당 대렬의 공고한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였으며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여 왔다는 것을 보이여 주고 있다.

일찌기 해방 직후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에 조성된 사회 경제—정치적 형편과 계급적 력량 관계를 맑스-레닌주의 원칙에서 분석한 기초 우에서 우리 혁명의 반제 반봉건적 성격을 규정하였으며 당의 당면한 임무로서는 광범한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의 결성과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설 임무를 천명하였다.

그리고 유일한 강령 전술 및 조직상 견해의 통일로 결속된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당을 창건할 데 대한 조직 로선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당의 정확한 정치 로선 및 조직 로선을 가지게 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김 일성 동지의 지도하에 우리 나라에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당을 창건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난관과 애로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특히 당 창건 사업에서 가장 커다란 장애물로 된 것은 과거 파벌 투쟁으로써 조선 혁명 운동에 엄중한 해독을 끼친 종파 분자들이 자기의 죄과를 뉘우칠 대신에 해방 후 또 다시 우리 혁명 발전의 정당한 정치 로선으로부터 리탈하여 반당적, 반혁명적 길로 나아감으로써 로동 계급의 대렬을 혼란시킨 그것이였다.

박 헌영을 두목으로 한 《화요파》를 비롯하여 《콩그룹》, 《엠. 엘파》 등 각종 종파들은 모두 자신을 혁명 투쟁의 《전통파》로 자처하면서 호상 대립하여 투쟁하였다. 그들은 오직 당내에서 《헤게모니야》를 쟁취하려는 데만 광분하였었다.

뿐만 아니라 박 헌영 도당은 시초부터 의식적으로 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 전변시킬 목적으로 미제에 의하여 장기간 양성된 주구 리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부르죠아 공화국을 우리 나라에 수립하려는 반당적이며 배신적인 책동을 하였다. 또한 그들은 위대한 쏘베트 군대의 해방적 사명을 과소 평가하면서 마치 미제가 조선 인민의 《해방자》인 것처럼 선전하였다.

북반부에서는 오 기섭, 주 녕하, 정 달헌, 리 주하, 장 시우, 장 순명 등 종파 분자, 지방할거 분자들이 틀을 차리고 앉아 분렬 책동을 감행하면서 당 창건을 방해하여 나섰다. 종파 분자들은 《헤게모니야》를 쟁취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종파 집단인 박 헌영의 《중앙》을 《당 중앙》이라고 고창하면서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혁명적 당을 창건하는 것과 당 중앙을 북조선에 두는 것을 반대하여 나섰다.

그러나 종파 분자들의 반당적 반 인민적 책동은 김 일성 동지를 위시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정확한 지도 밑에 당원들과 인민 대중에 의하여 폭로 분쇄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각종 종파 분자들의 책동을 극복하며 분산적인 지방 당 단체들을 결속하여 중앙 집권적인 통일적 당을 창건하기 위한 거대한 조직 사업에 착수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당의 사상적 및 조직적 결속을 위하여 실천적 투쟁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당의 우수한 간부들과 핵심 분자들을 지방 당 단체에 파견하였다.

그들은 당의 정확한 정치 로선에 의거하여 종파주의 및 각종 좌우경적 기회주의적 편향과의 투쟁을 전개하면서 로동 계급 및 전체 근로 대중 속에 당의 정확한 정치 로선을 침투시키며 당 단체들을 선진적 로동자 및 빈농민 속에 점차 뿌리 박게 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지방 당 단체들의 사상 조직적 결속을 강화하였으며 당의 핵심들을 준비시켰다.

이상과 같이 당 창건을 위한 조직 정치적 대책들을 실시한 토대 우에서 김 일성 동지의 지도하에 1945년 10월에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가 창설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김 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당이 창건되였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당이 조직적으로 완전히 정비 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였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공산주의자들이 아직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의하여 튼튼히 무장되지 못하였으며 혁명 투쟁의 경험이 적으며 공산주의 운동 내에서 과거의 파벌 투쟁의 잔재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남반부의 많은 당 단체들은 종파 분자들의 당내 《헤게모니》를 위한 파벌 투쟁으로 말미

압아 분렬되여 있었고 북반부의 일부 지방 당 단체들 내에는 종파 분자들과 지방 할거주의 자들이 존재하여 계속 로동 계급을 분렬시키며 당 단체들의 사상 조직적 혼란을 조장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가 창설된 초기 일부 당 단체 내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종파 분자들, 지방 할거주의자들, 가족주의 경향을 가진 자들, 개인 영웅주의자들은 당 조직을 롱락하면서 종파 행동을 계속하였다.

이 자들은 아직 당내에 사상적 통일과 조직적 체계가 완전히 확립되지 못한 어려운 시기에 당의 통일 전선 정책을 반대하여 공청을 민청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의식적으로 파탄시키려고 책동함으로써 당의 정치 로선을 혼란케 하고 있었다. 또한 이 자들은 당의 레닌적 조직 원칙과 당 생활 규범을 란폭하게 위반함으로써 당이 강력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에서 건설되는 것을 방해하여 나섰다.

당은 이들의 책동을 분쇄하고 당 내부를 맑스-레닌주의적 조직 원칙에 립각하여 급속히 정비하기 위하여 1945년 12월에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 제 3차 확대 집행 위원회를 소집하였다. 제 3차 확대 집행 위원회에서 당내의 종파주의자들, 지방 할거주의자들, 개인 영웅주의자들 및 기타 불순한 요소들은 급속히 장성된 대중의 계급적 각성과 날로 강화되는 당의 위력 앞에 결정적 타격을 받고 분쇄되였다.

당과 로동 계급의 위력에 의하여 강력한 타격을 받은 종파분자, 좌우경적 기회주의자들, 각종 반당 분자들의 다수는 이때로부터 당을 공공연하게 정면으로부터 반대하여 출현하지 못하게 되였으며 자기 정체를 은폐하고 량면주의적 립장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은 종파 분자들의 범죄적 준동이 계속될 때마다 이를 제때에 극복 함으로써 당 대렬을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를 위시한 진실한 공산주의자들을 지도적 핵심으로 하여 당 대렬의 튼튼한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고 광범한 대중 속에 뿌리를 박고 대중을 당 주위에 묶어 세움으로써 그 후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제반 민주주의 혁명 과업들을 승리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다. 당은 이러한 투쟁 행정에서 교양되고 훈련된 로동 계급의 우수한 자들을 체계적으로 당 대렬에 보충함으로써 자기의 튼튼한 기본 핵심 진지를 더욱 확대 강화하였다.

이 기초 우에서 우리 당은 당 앞에 제기된 혁명적 과업을 보다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된 정치 정세와 계급적 력량 관계의 재편성, 근로 대중의 여러 당에로의 분렬 동형책을 정확히 타산하고 근로 대중의 력량을 집결하며 그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로동당을 창건할 데 대한 새로운 조직 로선을 제기하였다.

당은 로동당 창건을 위한 사업 행정에서 당 내에 반로된 이러 저러한 좌우경적 편향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즉 일부 종파 분자들은 우리 당의 정당한 방침을 리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신민당과 합치느냐》고 하였는데 이는 독선적이며 좌경적인 편향이였다. 또 일부 종파 분자들은 우리 당이 《신민당화》, 《소자산 계급화》 한다고 운운하면서 좌경적 언사로서 합당을 거부하여 나섰는데 이는 실제에 있어서는 당을 한개의 소자산 계급의 단체로 만들려는 우경적 독소를 내포한 위험한 편향이 였다. 또한 일부 종파 분자들은 《당내에서 대량적으로 숙청할 것이다》라고 당을 시비하며 또한 합당 사업을 파괴하려는 암해 분자들은 《합당은 잠시적인 것이며 일정한 력사적 시기에 반드시 분리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또는 《합당은 공산주의자들의 일종의 술책이다》라고 비방하였다.

이러한 모든 경향들은 합당을 반대하는 해독적이며 종파적인 반당적 행동들이였다. 당은 이러한 좌우경적 편향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하면서 1946년 8월에 북조선 로동당을 창건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은 로동 계급은 물론 근로 농민, 근로 인테리들 중 선진 분자들을 당 내에 광범히 망라하여 근로 대중의 선봉대로서 조선에서 가장 강대한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당시 남반부에서 미 제국주의자들과 국내 반동들의 탄압이 극심하여진 조건하에서 당은 남반부에서 우리 당의 력량을 계속 보존하고 그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면서 광범한 민주 력량을 단결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로동당 창건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박 헌영 도당은 당의 정당한 조직 로선을 반대하여 나서면서 의식적으로 합당 공작을 태공, 파괴하면서 계속 당 대렬과 혁명 력량을 분렬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이 자들은 자기들의 종파적 그루빠에 속한 사람들만을 무원칙하게 등용 배치하며 종전에 다른 그루빠에 속한 사람들은 포용하지 않고 그들을 무조건 배척하면서 분렬을 조장시키였다. 다른 한편 박 헌 영 도당들과 종파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던 강진, 리 문홍 등 과거 《엠. 엘파》에 속하였던 자들은 과거 《엠. 엘파》의 변종인 《대회파》를 형성함으로써 합당 사업을 반대하고 당을 공공연히 분렬하는 길에 들어 섰다. 이들은 당 중앙의 수차에 걸친 지시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사회 로동당》을 조직하여 완전히 공산당과 로동 계급의 대렬을 분렬시켰다.

이러한 형편과 관련하여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사회 로동당》을 조직한 반당 종파 분자들의 파괴 책동을 심의하고 이를 폭로 규탄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정당한 조치에 의하여 《사회 로동당》은 해체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로동당으로의 합당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를 태공 파괴하려고 책동하였다. 이자들은 1947년 5월에 신민당과 인민당을 분렬하여 소위 《근로 인민당》을 결성함으로써 남조선 근로 대중을 여러 갈래로 분렬시켰다.

이때 자기의 정체를 은폐하고 우리 당 지도부에 잠입하여 있었던 《엠. 엘파》의 괴수인 최창익은 《사회 로동당》 《근로 인민당》을 장차 우리 당을 반대하는 자기의 종파적 지반으로 전환시킬 계획 밑에 합당 사업을 반대하는 이들 종파 분자들을 극력 비호 성원하여 주었으며 지어는 《근로 인민당》공작비로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등 반당 종파 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와 같이 종파 분자들의 집요한 파괴 책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수차에 걸친 경고와 장성되는 대중의 압력에 의하여 1946년 11월에 남조선에서의 합당 사업은 실현되였다. 그러나 남조선 로동당의 소위 합당은 형식적으로 되였다. 공산당은 로동당 간판으로 바꾸어 놓는 데 불과하였으며 우리가 기대한 근로 인민의 대중적 정당으로는 되지 못하였다.

박 헌영 도당은 남조선 로동당으로 합당한 후에도 계속 미제의 지시에 의하여 남조선에서의 혁명 운동을 파탄시키며 내부로부터 와해하기 위한 책동에 광분하였다. 이자들은 남조선에서 우리 당의 통일 전선 정책을 고의적으로 집행하지 않으면서 광범한 애국적 력량을 분렬시켰다. 또한 이자들은 당의 순결성을 고수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지시와 당 건설의 레닌적 원칙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소위 당원 《5배가》, 《10배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당 대렬내에 혁명의 변절자, 우연 분자, 이색 분자, 간첩 분자들까지 잠입시켰다. 이리하여 남조선 로동당 단체들은 적들의 로골적인 탄압에 직면케 되였으며 수습할 수 없는 정도로 급속히 와해되였다. 또한 이자들은 남조선 혁명 력량을 의식적으로 파괴하기 위하여 조성된 정세와 대중의 준비 정도를 무시하고 무모한 폭동을 임의로 조직하거나 또는 빨찌산 투쟁에서 무모한 진출을 강요함으로써 당 조직을 적 앞에 로출시키고 수 많은 당원들과 애국자들을 희생시키였다. 지어 이 자들은 남조선에서 우리 당의 유일한 지하 조직인 서울 지도부까지 몽땅 적에게 제공하였다.

이리하여 1925년에 창건되였던 조선 공산당이 종파 분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파괴된 것과 마찬가지로 해방 후 남조선에서 우리 당 조직이 파괴된 것도 역시 미제의 강압적 탄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는 종파 분자들의 파벌 투쟁에 기인된 것이다.

당은 조미 공동 위원회의 파탄 및 남조선에서의 반동적 단독 괴뢰 정부 조작과 관련하여 발생된 새로운 복잡한 정세 하에서 남북 조선의 애국적 민주 력량을 결속하고 령도하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창건하게 하였다. 동시에 남조선에서의 당 조직이 전면적으로 파괴되고 당의 합법적 활동이 보장되지 못하는 조건 하에서 우리 당은 남반부 당 사업을 강화하며 남북 로동당을 공식적으로 단일한 조선 로동당으로 통합하였다. 이러한 제반 조치들은 우리 당의 사상 조직적 통일과 당의 규률을 일층 공고히 함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졌으며 민주 력량을 확대 강화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전 인민적 투쟁을 보다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게 하였다

이와 같이 평화적 건설 시기에 있어서 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를 위한 투쟁을 통하여 축적된 력량은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는 튼튼한 담보로 되였다.

☆

☆

지방주의, 가족주의의 해독성

김 세경

청년들 속에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며 종파의 여독을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근절하는 문제이다. 그러면 지방주의, 가족주의란 어떤 것이며 그의 사상적 근원과 해독성은 무엇이며 그를 근절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여야 하겠는가?

지방주의, 가족주의란 어떤 것인가?

지방주의는 집단의 리익, 혁명의 리익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자기 지방의 리익》만을 첫자리에 내세우려는 사상과 행동을 말한다. 지방주의자들은 지방적 《특성》을 운운하면서 상부의 결정 지시에 대하여 제대로 응하지 않으며 지방적 그루빠를 형성하여 가지고 자기 지방 출신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원칙하게 융화 타협하며 그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 세우려하는 반면에 타지방 출신 사람들을 배척한다. 때문에 지방주의는 당과 혁명 대렬의 통일 단결을 방해하는 위험한 요소의 하나이다.

가족주의란 몇몇 사람이 한가족처럼 정실 관계를 맺고 당과 혁명의 리익 보다도 자기들의 정실 관계를 더 존중히 하며 동지 호상 간의 잘못을 서로 싸고 돌면서 비판을 하지 않는 등 당적 원칙을 떠난 사상 경향을 말한다. 가족주의는 보통 친척 친우 관계, 동향 동창 관계, 사제 관계 등에 의하여 조성된다. 가족주의도 조직 내의 사상—행동상 통일을 방해하는 해로운 경향이다.

지방주의, 가족주의는 착취 계급의 사상이며 수'법으로서 그의 사상적 근원은 리기주의, 개인 영웅주의이며 동시에 배타주의이다.

지방주의, 가족주의는 오랜 력사적 시기를 거쳐 내려온 착취 계급의 사상이다. 아직 생산력이 낮고 교환이 발달되지 않았던 노예 사회, 봉건 사회에서는 경제적 련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산되여 살았으며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문중을 이루고 살았다. 착취 계급은 자기들의 세력 다툼에 이와 같은 지방적 분산성과 문벌 제도를 리용하게 되여 지방주의와 가족주의가 생겨 났다.

과거 리조 시대에 수백 년을 두고 벌러졌던 당쟁은 바로 지배 계급의 세력 다툼에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리용한 실례의 하나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방주의, 가족주의는 부르죠아적 리기주의와 탐위주의, 출세주의, 개인 영웅주의를 기초로 한다. 부르죠아들은 자기들의 권력 다툼과 경제적 경쟁에서 지방주의, 가족주의적으로 결합하며 또 한편으로는 로동 계급과 모든 근로 대중의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것을 리용한다.

이와 같이 지방주의, 가족주의는 지방적 분산성, 문벌 제도, 착취 계급 내부에서의 권리 다툼 등을 토대로 하여 생겨 났다.

로동 계급 내부에는 그 자체의 본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지방주의, 가족주의가 발생할 근거가 없으며 거기는 계급적 단결과 협조가 있을 뿐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지방주의, 가족주의가 발생할 사회적 근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과거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악독한 낡은 사상 잔재로 남아 있을 뿐이다.

지방주의, 가족주의 해독성은 무엇인가?

첫째로 지방주의, 가족주의의 가장 큰 해독은 종파의 온상으로 되는 데 있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조선 로동당 함북도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동무들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지방주의, 가족주의는 종파를 낳는 온상이다. 이것은 종파의 첫 시작이며 이것이 발전하면 종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뿌리 빼야 한다》.

종파주의와 지방주의, 가족주의 사이에는 아무런 본질적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종파는 아직 종파를 형성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지방주의, 가족주의적 그루빠보다 규모에 있어서 클 뿐이다. 그리고 지방주의와 가족주의는 당을 반대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종파는 당을 직접 반대하여 나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지방주의, 가족주의, 종파주의는 그 사상적 본질에서 같으며 서로 끌어 당기면서 패를 짓는 수'법에서도 동일하다.

종파는 반드시 지방주의와 가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다. 1920 년대 우리 나라 로동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종파 집단들인 《상해파》, 《서울파》, 《화요파》, 《엠엘파》, 《서상파》 등등은 모두다 지방주의, 가족주의에 의하여 형성되였고 조장되였다.

해방 직후 함남에서의 오 기섭, 원산에서의 리 주하, 함북에서의 장 순명, 평남에서의 장 시우 등등의 지방 할거주의자들과 반혁명, 반당 종파 분자 박 헌영, 리 승엽 간첩 도당들은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조장하면서 악랄하게 종파 책동을 감행하였다. 최근 년간에 폭로 숙청된 최 창익, 박 창옥을 두목으로 하는 반당 반혁명 종파 도당도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리용하면서 음흉한 책동을 진행하였다. 즉 이는 과거로부터 력사적으로 내려 오던 종파인 《엠엘파》의 주동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여 과거에 일정한 시기에 같은 단체에 속하였거나 일정한 시기에 같은 지역에 있었던 일부 분자들, 당에 대한 불평 분자들이 가장 음흉하게 가족주의를 리용하면서 결탁하여 련합 종파를 형성하였다.

이렇게 어느 종파를 막론하고 지방주의, 가족주의로부터 출발하여 종파로 전락되여 당과 혁명을 배반하는 범죄적 길에 빠졌다.

둘째로 지방주의, 가족주의는 당 정책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큰 장애로 될 뿐만 아니라 그를 외곡 집행한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지방주의, 가족주의의 틀이 마사지지 않고 있는 데서는 당 정책이 틀어 가지도 않고 해방 직후의 형편이 그냥 지속되고 있다, 이 틀이 마사진 데서는 당 정책이 침투되여 상당한 발전을 가져오고 진보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지난 시기의 경험은 지방주의, 가족주의는 종파 분자들, 불순 분자들이 당의 정책을 고의적으로 외곡하는 해독 행위를 묵과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당이 랭상모 문제를 제기했을 때 반당 종파 분자 한 전종, 리 용석 등은 《랭상모는 수모만 못하다》고 하면서 반대하였으며 최근에는 2모작 문제를 가지고 한 전종과 그 추종 분자들은 《밀은 우리 나라에 적지가 적다》라고 하면서 그의 파종 면적 확장을 반대하였다.

심지어 국영 농업 관리국 전 기사장이였던 장 인순은 당이 《풀과 고기를 바꾸자》는 구호를 제기하였을 때 《외국에서도 하지 않은 일을 공연히 그런다》고 하면서 국영 농목장에서 계속 알곡 사료 비중을 높일 것을 강조하여 왔다. 반당 종파 분자 박 의완이와 김 승화는 기본 건설에 대한 당의 기본 방침을 계통적으로 위반하면서 표준 설계, 조립식 건설에 대한 당의 지시를 집행하지 않았다. 그들의 반당적 행동이 지속된 것은 그들에 맹종한 일부 분자들의 가족주의 틀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 축운이가 석탄 공업 부문에서 로동자들의 증산 결의를 반대 모독하였으며 고속도 굴진 운동을 반대한 해독 행위도 이 자들에게 맹종한 일부 분자들의 가족주의적 융화 타협에 의하여 조장될 수 있었다. 한 때 수산성 내에서도 당이 내세운 심해 어업, 세소 어업, 서해 어업 개발 등등을 반대하여 그를 관철시키지 않았는바 이에는 종파 분자의 반당적 책동과 함께 가족주의의 해독적 영향도 작용하였다. 또한 한 때 상업성과 수매 량정성에 기여 들어 당의 상업 정책과 수매 정책을 외곡 집행한 반당 종파 분자 윤 공흠과 오 기섭 등의 반당적 죄행도 가족주의를 발판으로 더욱 조장되였다.

이와 같이 지방주의, 가족주의 경향은 그것이 비록 종파 분자와 직접 련결되지 않았을 때에도 당 정책의 철저한 관철을 방해한다.

지방주의, 가족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관 본위주의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지방이나 자기 직장의 《특수한 사정》을 크게 들고 나오면서 당의 지시를 집행하지 않는다.

셋째로 지방주의, 가족주의는 간부 사업에서 당적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불순 분자들이 숨어 들 틈을 만들어 준다.

간부 배치 등용 사업에서 당적 원칙과 리탈된 온갖 비원칙적 현상은 많은 경우에 지방주의, 가족주의와 련결된다. 간부 사업에서 안면 관계, 정실 관계, 동창 관계, 개인 소개 등등에



의한 간부 배치는 모두다 지방주의, 가족주의의 표현이며 이렇게 되면 불가피적으로 당 대렬 내에 불순 분자들이 숨어 들 틈을 주게 된다.

간부 사업에서 당적 원칙이란 당 간부들을 간부들의 정치적 및 실무적 표준에 의하여 선발 배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주의, 가족주의자들은 간부 사업에서 당적 원칙을 위반하여 간부들을 배치하며 심지어는 정체가 똑똑치 않은 불순 분자들 까지 같은 문벌이요, 같은 지방 출신이라 하여 등용함으로써 당내에 불순 분자, 암해 분자들을 끌어 들이는 현상을 초래한다. 특히 종파 분자들은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리용하여 각종 불순 분자들을 의식적으로 끌어 들인다.

지난 기간 함북도내 장 순명을 비롯한 종파 분자들은 간부 사업에서 당적 원칙을 위반하고 김책군 사람들을 청진에 끌어 올린 결과 과거 일제 때 아편 장사를 하다가 징역까지 한 불순 분자를 《혁명가》로 등용한 사실이 있다.

네째로 지방주의, 가족주의는 당내 사상 투쟁을 마비시켜 일'군들을 부화 타락케 하며 국가 재산을 탐오 랑비하는 반국가적 범죄를 낳게 한다.

지방주의, 가족주의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상습의 하나는 무원칙하게 서로 끌어 당기는 것이다. 그들은 《인간성》이니 《감정이 맞는다》느니 하면서 근거 없이 《친밀성》을 표시하며 직위를 리용하여 비원칙적인 《은혜》를 베푼다든가 각종 부당한 경제적 《방조》를 주는 등으로 결합되여 호상간 결함에 대하여 융화, 묵과, 타협하면서 사상 투쟁을 마비시킨다.

국가 재산의 탐오 랑비와 횡취, 부화 방탕 등의 반국가적 현상들도 많은 경우에 가족주의에 기초하면서 발생, 조장된다. 지방주의, 가족주의자들은 술 좌석을 자주 벌려 놓고 부화 방탕하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국가 재산이나 공동 재산에 손을 대는 반국가적 범죄를 범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범죄 행동은 많은 경우에 몇몇 분자들이 결탁하거나 또는 호상 묵과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이미 적발된 제 사실은 이를 잘 증명하여 주고 있다.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반대하여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이상과 같이 지방주의와 가족주의는 우리의 혁명 사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다. 때문에 우리는 이 지방주의, 가족주의와의 투쟁을 한시도 늦추지 말고 계속 진행해야 한다.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인 사상 투쟁을 강화하며 당적 사상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맑스—레닌주의 사상 리론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온갖 낡은 사상 잔재 특히 리기주의, 개인 영웅주의, 자유주의와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하며 일체 비원칙적인 행동과 동지의 결함에 대하여 융화 묵과하는 태도를 근절해야 한다.

부정적 현상, 동지의 결함에 대하여 융화 묵과하는 태도는 가족주의의 싹이며 첫 출발이다. 때문에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향과 날카로운 사상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들은 당 결정 지시들과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에서 하신 교시를 심오히 연구하며 그를 실생활에 관철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힘써야 한다. 우리가 당 정책을 알지 못하면 자기 사업에 자신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 정책을 그릇되게 집행하는 행동을 보고도 제때에 그를 비판하지 못하고 도리여 그런 행동에 휩쓸려 들어가 가족주의를 형성하게 된다.

다음으로 민청 조직 생활을 충실히 하며 민청 규률을 강화하여야 한다.

민청 조직 생활을 충실히 하지 않고 조직 규률을 지키지 않는 데서 지방주의, 가족주의의 분위기 속에 빠져 들어가 결국에는 종파 분자들에게 리용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적이여야 하며 항상 민청 조직에 철저히 의거해야 한다. 그리고 온갖 그루빠적 경향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항일 유격대의 고상한 도덕 품성을 계승하여 그들처럼 혁명적인 동지적 단결을 튼튼히 해야 한다. 혁명적인 동지적 단결이란 오직 당과 혁명을 위하여 동지적 사이에서 생사를 끝까지 같이 하기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동지들 간에 비판을 하지 않으며 사상 투쟁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혁명 동지들 사이에서의 단결은 동지들의 결함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써 더욱 강화된다.

우리는 동지들의 충고와 비판을 허심하게 받아 들이고 결함을 대담하게 고칠 줄 알아야 한다.

진정한 당적 결합과 혁명적 동지애는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서만 더욱더 공고해 진다.

일본 뇌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기를 철저히 박멸하자

일본 뇌염은 전염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급성 전염병이다. 지금 일본 뇌염은 남조선에서 만연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고 있다.

일본 뇌염은 아직까지 16세 이하의 소년 및 유아들과 60세 이상의 로인들에게만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남조선에서의 실정은 20세 안팎의 건장한 청년들도 일본 뇌염에 걸린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일본 뇌염의 매개물은 모기이다. 사람은 이 병균을 가진 모기에 물린 후에도 약 10~15일 동안 아무 것도 모르고 지낸다. 그러나 15일이 지나면 갑자기 열이 오르고 몹시 머리가 아파난다. 그리고 어지러워지는 한편 토하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경련을 일으킨다. 이러한 증상들이 2~3일간 계속된 후 환자는 계속 잠을 자다가 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치거나 말을 못하기도 한다. 이때 환자의 목은 꿋꿋해 지고 얼굴이 찌그러지지 않으면 팔과 다리가 꼬인다.

일본 뇌염이 무서운 급성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이 어느새 걸리는지 모르게 걸린 다음 갑자기 병이 나고 또 갑자기 환자의 생명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다. 일본 뇌염 환자는 사망률이 높다. 산다 해도 환자는 올바른 정신을 못가진 병신으로 된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없다. 해방후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일본 뇌염이 만연되여 기근에 허덕이는 남조선 인민들을 더 불행한 함정에로 몰아 넣었으며 또 넣고 있다. 그러나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우리 당의 정확한 예방 의학적 시책에 의하여 남조선으로부터 침습한 일본 뇌염을 그때마다 철저히 방지되였었다.

문제는 예방 여하에 달려 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주위에서 모기를 모조리 잡아 없애는 동시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항상 해당한 대책을 강구하면 된다.



그러나 아직 우리들 속에는 《일본 뇌염이야 늙은이들이나 어린 것들 한테 걸리지 청년들에겐 상관 없다》느니 또는 《술을 잘 먹는 사람에겐 걸리지 않는다》고 당치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일본 뇌염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데 사상적으로 동원되지 않고 있는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날이 차지기 전에야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모기를 모조리 없앨 수 있는가?》 하면서 모기 잡이를 등한히 하고 있는 동무들도 있다.

이런 동무들은 위생 문화 사업이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문화 혁명의 주요한 구성 요소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지식 있고 기술 있고 건강한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가 악전 고투하여 오늘과 같은 사회주의 혁명 고조를 이룩하여 놓은 것도, 그리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도 결국 조선 사람들이 더 잘 살자는 데 목적이 있다. 모기에 물려서 일본 뇌염으로 병신이 되거나 죽는다면 이것처럼 큰 수치는 없다.

요즘 같은 초가을에 모기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염병을 더 강하게 퍼뜨린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모기의 발생지인 물구덩이나 하수도, 도랑 등을 철저히 메꾸거나 깨끗이 치고 《헥사흐로란》 《포백분(크롤칼기)》 같은 약을 뿌려서 모기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 모기들은 방안이나 부엌의 컴컴한 구석들과 헛간 등에 많이 모여 있으므로 이런 곳들에도 철저히 모기약을 뿌려 한 놈도 남김없이 잡아야 한다. 그리고 밤에는 꼭 방안에서 모기를 몰아 내고 문을 닫고 자야 한다. 특히 《농촌 위생 월간》을 맞이하고 있는 농촌 청년들은 이상의 예방 대책을 취하는데 모범이 되여야 한다. 민청 단체들과 청년들은 일본 뇌염 예방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는 낡은 사상 잔재들과의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모두다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다.



혁명 가요 해설

용진가

김 오 준

혁명 가요 《용진가》는 1930 년대 김 일성 원수께서 조직 지도하신 항일 빨찌산 투쟁 과정에서 창작된 수 많은 혁명 가요들 가운데서 가장 널리 보급되고, 빨찌산과 인민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던 혁명 가요의 하나이다.

《용진가》는 1930 년대 초부터 항일 빨찌산들과 유격 지구내 인민들은 물론, 국내 인민들 가운데서도 광범히 불리여졌다.

이 혁명 가요는 다른 많은 혁명 가요들과 마찬가지로 일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싸운 혁명 투사들이 집체적으로 창작한 작품이다.

《용진가》는 모두 4개 절로 구성되여 있다.

> 백두산하 넓고 넓은 만주들판은
> 건국 영웅 우리들의 운동장일세
> 걸음걸음 발을 맞춰 앞만 향하여
> 활—발발 나아감이 엄숙하도다

이렇게 시작되는 《용진가》는 항일 빨찌산들의 영웅적 기백과 굉배한 투지와 드높은 긍지로 일관되여 있다.

우선 이상 제 1 절에서는 원수를 맞받아 싸우러 나가는 항일 빨찌산들의 거세고 엄숙한 진격을 노래하고 있다.

김 일성 원수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항일 무장 투쟁의 첫 시기부터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를 창설하고 혁명 력량을 키우고 집결시켰다. 혁명 력량의 확대 강화—이것은 곧 원수 일제와 그의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러기 때문에 《용진가》에서는 《백두산하 넓고 넓은 만주들판》을 《건국 영웅 우리들》(항일 빨찌산들)의 《운동장》(싸움터)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즉 운동이 체질과 신심을 단련하듯이 전 만주 광야를 무대로 하여 원쑤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항일 빨찌산들은 강철의 혁명 투사로 더욱 단련되였던 것이다.

원쑤를 족치러 싸움에로 나가는 길—그것은 곧 조국 광복에로의 길이였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철저하게 인식하였으며 혁명에 충실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겠다는 무비의 헌신성과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으로 무장한 항일 빨찌산들은 어떠한 간난 신고에도 굴함 없이 오직 《앞만 향하여》 거세인 진격의 발걸음을 내디디였던 것이다.

> 대포'소리 앞뒤'산을 들들울리고
> 총파갈이 상설같이 맹렬하여도
> 두렵없이 와와하는 돌격소리에
> 적의군대 정신잃고 막쓰러진다.

이 얼마나 치렬한 전투 장면에 대한 생동한 노래인가!

총과 칼이 서리'발 같이 날카롭고 맹렬하여도 항일 유격 대원들은 돌격 소리와 함께 괄같이 싸움에 나섰다.

전투는 고조되여 육박전으로 들어 갔다.

> 억만대병 가운데로 헤치고 나가
> 우리들의 총파갈을 휘휘돌릴때
> 원쑤머리 말우에서 떨어지는것
> 늦은 가을 나무잎과 다름없고나

이 같이 노래의 격조는 높으며 항일 유격 대원의 영웅적 기개와 불굴의 투지는 극히 감명 깊게 노래되고 있다.

가요는 항일 유격 대원들의 투쟁의 목표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 한양성에 자유종을 뗑뗑울리고
> 삼천리에 독립기를 펄펄날릴제
> 인민의 새정부를 건설하고서
> 삼천리 강산에서 만세부르세

이러한 고귀한 목적으로 하여 항일 유격 대원들은 전투에서 용감하였고 자기 희생성을 발휘하였다.

이 마지막 련은 항일 유격 대원들의 혁명적 락관주의의 구체적이고도 감명적인 표현이며 승리의 신심에 대한 명백한 반영이기도 하다.

이러한 혁명적 락관성은 항일 빨찌산들이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의 불패의 생활력을 인식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영명한 지도자이며 탁월한 령장이신 김 일성 원수의 지도가 있는 한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에 토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용진가》에는 항일 빨찌산들의 영웅적 기백이 투쟁의 전망에 대한 혁명적 락만성과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혁명 가요 《용진가》는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 가요는 행군시나 휴식시는 물론 어려운 전투 과정에서 대원들의 사기와 투지를 고무하는 위력한 무기였을 뿐만 아니라 적들을 혼란과 공포 속에 떨게 하며 지어 적 내부를 와해시킴에 있어서도 큰 의의를 가졌던 것이다.

동시에 이 《용진가》는 인민들을 교양함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인민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의 군대—항일 빨찌산의 존재와 그 투쟁에 대하여 한없는 긍지를 가지였으며, 일제 통치의 암담하던 시기에 항일 빨찌산들처럼 일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우는 것이 가장 보람 있고 떳떳한 삶이라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이 혁명 가요의 언어는 소박하며 간결하다. 이 가사의 언어적 형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우선 의성—의태어가 풍부히 리용됨으로써 매우 높은 형상성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 들들울리고, 와와하는, 휘휘돌릴때,
> 뗑뗑울리고, 펄펄날릴제…

또한 반복 및 비유적 수'법과 대조적 묘사(이 노래 전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등 실로 다양한 표현 수'법을 보여 주고 있다.

> 넓고넓은, 걸음걸음, 활—발발
> (이상 반복의 수법)
> 원쑤머리 말우에서 떨어지는것
> 늦은가을 나무잎과 다름없고나
> (이상 반복의 수법)

이와 함께 《용진가》의 형식에서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것은 우리 민족 전래의 4.4조 민요 형식을 살려 혁명 가곡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잘 조화된 률동미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이다.

> 인민의 새정부를 건설하고서
> 삼천리 강산에서 만세부르자

항일 빨찌산들과 인민들이 그렇게도 갈망하였으며, 그것을 위하여 항일 빨찌산들이 자기의 보람찬 일생을 바친 바로 그 인민의 새 정부 밑에서 오늘 우리는 자유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일제 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항일 빨찌산들이 김 일성 원수의 령도하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일편 단심 혁명을 위하여,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걸음걸음 발을 맞춰 앞만 향하여》 나아 갔듯이 오늘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김 일성 원수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하여 천리마의 말고삐를 더욱 튼튼히 틀어 잡고 나아 가고 있다





남녀 청년간의 순결한 태도

◇박 준 모◇

영흥군 량탄 농업 협동 조합의 한 독자는 순옥이라는 처녀 동무의 비도덕적 행동에 대하여 쓴 편지를 편집부에 보내왔다. 이 처녀는 작년 6월 덕지강 관개 공사에 나갔을 때 황이라는 남자와 련애를 하게 되였다. 그러나 몇 달후 순옥 동무는 갑자기 황 동무와 인연을 끊고 배 동무와 련애 관계를 맺았다.

그의 그릇된 행동에 대하여 친우들은 물론 초급 민청 단체에서도 충고를 주었다. 순옥 동무는 동지들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결함을 고칠 대신 금년 봄에 와서 또 배 동무를 버리고 김 사경이란 동무와 련애 관계를 맺는데 이르렀다. 이러한 그릇된 행동이 세상에 알려져 비난을 받게되자 그는 《농촌에서는 시끄러워서 못살겠으니 직장으로 보내 달라》고 하면서 수주일째 조합 일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남녀 청년간의 련애는 장차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사회주의 건설에 더욱 충실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남녀 청년들은 련애 문제에 신중하게 대하며 경솔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반대하여야 한다.

우리 시대 청년 남녀들에게 있어서 순결한 련애란 혁명 투쟁의 드세찬 불'길 속에서, 로동 행정에서 고상한 동지애에 기초하여 맺어지는 진정한 사랑일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나비가 꽃을 따라 옮겨 날듯이 행동한다면 그것을 어찌 사랑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의 주위에는 아직까지도 순옥 동무처럼 사랑을 희롱하면서 불건전한 도덕 생활에 빠져있는 일부 동무들이 있다.

이런 동무들은 흔히 《리상이 맞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고 변명한다. 그러나 알고 보면 본질은 이에 있지 않다.

문제는 사랑을 희롱하는 일부 동무들이 부르죠아 생활 양식에 물젖어 있는 데 있다. 그들은《리상》을 운운하면서 실은 자기들의 낡은 사상 잔재를 음폐하고 있을 따름이다.

차 순옥 동무의 경우가 이것을 잘 말하여 준다. 편지의 다음 구절에 의하면 그는 새 남자를 대할 때마다 처음에는 그 남자가 마음에 든다고 하였으며 그가 없으면 잠시도 떼여 날 수 없다고 자주 말하였다 한다. 그러나 얼마 후엔 그런 《일편단심》이 사라지고 만다. 여기에 무슨 리상이 문제로 되겠는가? 물론 련애라는 것은 백날이 하루 같을수 없으며 그 행정에는 일정하게 권태감도 생길 수 있고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상대방의 결함도 발견될 수 있다. 이런 때에도 원칙적이고 신중성있게 서로 충고하고 따뜻하게 방조하여 결함을 시정하도록 하며 이런 기초 우에서 사랑을 더욱 깊고 공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련애 대상을 자주 바꾼다면 그러한 행동의 후과가 동지간의 호상 질투와 불신임을 조성하며 상대방에 고민을 주어 학습과 로동에 지장을 초래케 하며 혁명에 손실을 준다.

편집부는 한 처녀가 이미 결혼하여 아들까지 본 남자와 련애를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도 받았다.

우리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일부 일처제를 규정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미 결혼한 사람과 다시 2중으로 결혼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애인이 있는 남자(혹은 녀자)와의 련애는 남의 사랑을 빼앗아 가정 불화를 야기시킨다. 이와 같이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남의 행복을 희생시키려는 소위《사랑의 쟁취》는 얼마나 비렬한 부르죠아적 승냥이 도덕인가!

동방 례절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우리 나라에는 남녀간의 절개를 송죽같이 지킨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전하여지고 있다. 우리는 《춘향전》에서 리 몽룡과 춘향이 첫사랑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며 순결하게 지조를 지켰는가의 모범을 본다. 봉건 량반들의 권력도 돈도 채찍도 감옥도 지어는 사형 선고 까지도 춘향의 순결한 지조를 꺾지 못하였으며 봉건적 신분 관계의 장벽도 리 몽룡의 첫 사랑에 대한 지조를 움직이지 못하였다.

인간들도 아직 미개하였던 원시 공동체 사회에 있어서는 동물과 별다름 없는 란혼, 군혼 등 무질서한 성생활 관계가 사회적 현상으로 존재하였었다. 그후 사회가 발전하고 인간이 개명됨에 따라 인간의 성 생활 관계는 일부 일처제로 되였고 그것이 도덕적인 것으로 되였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며 불평등이 존재하는 착취 사회에 있어서는 이 륜리가 철저히 실현 되지 못하였다. 녀성들은 인간 이하의 천대를 받았으며 혹은 남자들의 노리개'감으로 되는 처지를 벗어날 수 없었다. 오늘도 자본주의 사회에는 착취 계급들이 첩을 공공연히 가지며 녀성들의 몸을 매매하는 행위가 감행되고 있다. 녀성들은 돈전을 위하여 자기의 정조를 유린 당하며 지어는 그런 것을 직업으로 삼는 매춘부까지 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착취와 불평등이 청산된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는 녀성들이 남자와 평등한 권리를 갖이고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 속에는 남녀 관계에서 과거 자본주의 사회가 남겨 놓은 참을 수 없는 잔재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부 동무들 중에는 신중한 고려가 없이 경솔하게 애정 관계를 맺으므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있다.

이것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남녀 쌍방이 합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한다.

남녀 청년들 간의 련애에서의 순결성 문제는 그의 정치 생활의 순결성 문제와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련애 관계에서 부화하며 방탕한 자는 필경 정치 생활에서도 진실치 못하다. 이런자들은 국가 사회 재산에 대한 탐오와 음주 방탕, 사업에 대한 태공, 그리고 종파의 온상으로 되는 가족주의와 지방주의 등을 동반 하고 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반혁명 분자의 롱락물로 전락될 수 있다.

남녀 청년들 간의 호상 관계에서 순결치 못한 일체 비도덕적 행동은 부르죠아 도덕과 그 생활 양식에 기인한다.

민청 단체들과 청년들은 부르죠아 사상 잔재를 반대하여 비판의 화력을 퍼부으며 고상한 공산주의 도덕을 확립하기 위하여 사상 투쟁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리 기영

《위생 지도원 동무—오늘은 좀 늦으셨군요.》하고 이마가 숙붙은 청년이 먼저 아른체를 한다.

《다른 데로 돌아 오느라고요, 더운 물들 자서요.》

박 인옥은 물 주전자와 약가방을 판판한 바위, 울우에 내려 놓는다.

《동무는 위생 지도원이요?》

《네!》

《선생님은 성에서 내려 오셨습니까?》

김 충걸이가 물어보는 말이다.

《그렇소, 난 성에서 왔소》하고 신임 대대장은 웃음을 먹음고 대답하였다.

《그럼 오시다가 2대대의 작업 현장을 보셨겠군요.》

맨 먼저 응대를 하던 청년이 묻는 말이다.

《보았소—아따 참 그 동무들 세차게 일들을 하던데!》

《어떻게요?》

여러 청년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일제히 그에게 시선을 쏘았다.

《강 건너 저편에서 교각 기초의 굴착 작업을 하는데 얼음 물속에 들어 서서 땅밑을 파낸 것을 그들이 창안한 두레박식 바가지로 련신 담아 올리드란 말이요. 한편에서는 네대의 무자위로 샘이 솟는 물을 퍼내면서!…》

《아!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교각의 기초 굴착 공사를 빨리 완공하기 위하여 그전에는 5리가 넘는 인도교를 돌아 다니던 것을 강물 우에다 림시 가교(假橋)를 놓았다는데 그 때는 지금보다도 더 추운 령하 20도가 넘는 추운 날이라 도끼로 얼음을 끄고 들어 가서《물속에서 땀을 내자!》는 구호를 웨치며 80명의 돌격 대원들이 600여 개의 흙가마니를 쳐 넣어 쌓아올리고 그 우에다가 장철과 침목을 척척 걸쳐서 불과 두시간 동안에 다리를 놓았다는구려. 그런데 그 붉은 전사 돌격 대장이 방… 누구라던가? 이름은 잊었소만…》하는 말에

《아—방 상문 동무 말이지요, 그 동무는 바로 이 동무의 신랑입니다.》하고 김 충걸이가 위생 지도원을 가리키며 웃는다.

《아니 그가 바로 동무의 약혼자요?》

《제 남편이에요.》

박 인옥은 아미를 숙이며 부끄러운 태도로 대꾸한다.

《부부간이면 어째 서로 떨어져 있소?》

박 인옥은 한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으며 미처 대답을 못하는데

《우리 청년 건설장에는 부부 생활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아마 내외분이 합의를 본 후에 각각 다른 대대에서 일하기로 결정을 채택한 모양 같습니다.》하고 또다시 김 충걸이가 말 대꾸를 한다.

《그럼 서로 만나 볼 기회도 없겠군요.》

《견우 직녀 처럼 1년에 한 번씩 만나기로 약속하였답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니?》

《금년에는 1계단 공사가 끝나는 날에 만나구요, 래년에는…》

김 충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인옥은 그만 약가방을 둘러메고 빈 주전자와 물 그릇을 주섬주섬 챙겨들더니만 달아나 버린다. 그바람에 모든 사람들은 일시에 웃음통을 터치며 그를 바라다 보았다.

《선생님 2대대보다 우리 3대대는 어떻게 일들을 합니까?》

《나는 방금 도착해서 먼저 여기로 오는 길이라 동무들이 일하는 것을 아직 못 보았소.》

《네 그러셔요. 그럼 저의들이 일하는 것을 좀 보시구 가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보겠소.》

미구하여 김 경식 돌격대장이 일어서며

《동무들 일합시다.》하고 선성을 걸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 전체 대원들이 일시에 와—일어나서 작업장으로 달려 갔다.

한 패는 벼랑 우로 올라 가서 석비레를 까 뭉기는데 그 밑에서는 삽으로 연신 따찌까에 그것을 퍼 담았다. 그러면 운반공들은 제각금 따찌까를 밀고 줄달음 쳐가서 흙을 부리군 하는 데 누구나 할것 없이 그들은《여이차! 여이차!》선소리를 주고 받아서 현장은 별안간 떠들석하니 빅작 고아 대였다.

한 충발은 이편 로반에서 대원들과 함께 큰 가래장치를 잡고 가래질을 하였다.

《참 동무들의 기세도 대단한데—》

《2대대만 못하지 않지요? 우리 3중대에도 영웅이 있답니다.》

《영웅이 누구요?》

《박 지성 동무에요, 그 동무가 7형제 바위의 발파를 성공했답니다》

《그 동무가 여기 있소?》

《지금은 없어요. 폭약을 구하러 나갔어요》

《하—거 참 장한 일인데—》

한 충발 대대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며 그들과 가래질을 한참 하다가 침교천 다리의 가설 공사장으로 올라 갔다. 씩씩한 청년들의 기상을 보고 그는 자기도 금시로 젊어지는 것 같은 굳세인 힘을 느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식전 조기회 때에 정치 부대대장이 인사 소개를 하는 것을 들으니 이제 그 〈선생님〉은 고 국경 대대장 후임으로 새로 온 대대장 한 충발이였다. 이 말을 듣자 그와 함께 가래질을 하며 가장 많이 입을 놀리였던 김 충걸이가 머리를 긁적이며

《그런줄 모르고 난 공연히 여러 말을 하였지, 버릇이 없이 군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괜찮아—새로온 대대장 동지는 갈려간 이와 다르지 않아!》

리 춘식이가 대꾸하는 말이였다.

그들은 새로 온 대대장의 소박한 태도를 믿업게 생각하였다.

10, 공산주의적 교양

리 춘식의 고향은 황해북도 곡산군 산'골이다.

금번에 지하리— 평산간 철도 건설장에로 탄원을 해 오기는 하였으나 그는 처음에 왔을 때 남몰래 실망을 느끼였다.

그것은 얼음과 눈속에 덮인 례성강반의 스산한 꼴과 마뜩지 않은 현장 작업 조건이 그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기 때문이다. 삽과 괭이로 언 땅을 파러 에까지 왔는가? 그런 일은 산'골에서 자라난 자기는 연골적부터 많이 해왔다.——철도를 어떻게 놓는지도 모르는 산'골 태생인 춘식이는 첫날 현장 작업에서 곡괭이 질을 하다가 그만 골이 나서 이런 불평을 터치였다. 그후에 그는 딴 궁리가 나기 시작했다.

한데 제 3중대에는 그와 같은 동무가 또 한사람 있었다. 김 춘화는 량강도 삼지연에서 온 역시 나이 어린 대원이였다.

리 춘식이가 꾀병을 하고 현장에 나가지 않던 날 아침, 그도 식당에서 합숙으로 돌아 오다가 춘식이와 마주쳤다.

《동무는 오늘 일 아니 나갔소?》

《난 몸이 아퍼서 진찰을 해 보련구…》

리 춘식이가 묻는 말에 김 춘화는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였다.

《나두 아퍼서 오늘은 쉴려구 아니 나갔소. 그런데 일거리나 어데 만만해야지.》

《난 집으로 도루 가구만 싶은데, 공연히 왔어.》

《정말이지 언땅이나 파려구 누가 예까지 왔나 뭐.》

《동무두 그렇게 생각하나? 난 백두산 밑에서 사는데 앞대는 춥지도 않구 일터도 재미 있는 줄 알고 왔더니만 이건 스산스럽기가 량강도 두메 산,골보다도 더하단게! 난 그래 집으로 가구만 싶어서…》

《나역시 그런 생각이 든다니! 공연스레 왔다구 후회만 작구 되겠지.》

《집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 그까진 것…》

류류 상종으로 그들은 이와 같이 서로 심중을 헤어놓고 피차간 의향을 말하였다.

그날 아침에 김 춘화는 진찰을 해보았는데 감기에 걸렸다고 2일간 휴식하라는 진단서를 받았다. 그런데 김 춘화는 그것을 12일간으로 위조한 후 사흘 동안을 누워 있다가 평산 정거장까지 도망쳐 갔었지만 트레스트 본부 직원이 발견하고 도로 붙잡아 왔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리 춘식은 섯불리 도망을 쳐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자 장기적인 꾀병을 앓기로 작정하였다.

그는 본집에 편지를 써 부쳤는데 그 내용은 어머니더러 꼭 한 번 찾아와 달라고 하였다.

리 춘식의 생각에는 자기 어머니가 만나보러 올때까지 꾀병을 앓고 누어 있으면 대대에서도 보내줄 줄로 알았다.

그러면 자기는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속심을 하였던 것이다. 대원들 중에는 춘식이와 같은 태공 분자는 진즉 돌려 보내는 것이 좋겠대고 중대장에게 제의하는 동무들이 있었다.

그들은 삼지연에서 온 김 춘화의 불순한 행동이 다른 동무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하였는데 대원 중에 꾀병쟁이가 또 생긴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그것은 청년 철도 건설자——전체 대원의 명예를 회손시키는 것으로서 용서할 수 없다고 분개하였던 것이다.

제 3중대장은 이 사유를 정치 부대대장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한 석천 정치 부대대장은 그들의 의견에 반대하고 다음과 같이 물어 보았다.

《김 춘화 동무는 요새 어떻소? 일을 잘 나오나요.》

《네. 그 동무에게 개별적 비판과 충고를 해 준 후부터는 차차 건실한 태도로 나옵니다.》

《거 보시오. 교양을 잘 주어야 된다니요. 리 춘식이도 그 동무와 다를 것이 없소.》

하고 정치 부대대장은 자신을 가진 태도로 다음과 같이 뒤말을 잇대인다.

《그때 김 춘화 동무를 민청에서 출맹을 주고 저의 본집으로 돌가 보냈드라면 그 사람은 아주 락오자가 되였을 것이요. 나도 알아 듣도록 타일렀지만 민청에서와 중대장 동무 이하로 그 동무를 잘 포섭하였기 때문에 저도 량심에 찔리여 반성하게 된 것이요. 그러니 앞으로도 그 동무에 대해서는 각별히 류의하시요. 잘못한 것은 타내지 말고 잘 하는게 있거던 추워 주시요, 누구나 칭찬을 해주면 좋아 하는 법이니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제 3 중대장은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였으나 썩 달가와 하는것 같지는 않았다.

《리 춘식 동무도 김 동무의 심정과 다를게 없다고 나는 생각하오. 하니까 이 동무도 돌려 보내진 맙시다. 여기서 사람이 못된 것을 어데로 보낸단 말이요. 제 고향에 돌아가서도 역시 그렇게 아니겠소. 하다면 우리는 그런 동무들을 잘 교양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책임이 있소. 지도적 립장에서 말이요.》

하고 정치 부대대장은 의미있게 제3 중대장을 쳐다본다.

《그렇지만 아프지도 않은데 꾀병을 앓고 아니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제3 중대장은 난처한 기색을 얼굴에 나타내자 이렇게 대꾸한다.

≪설마 아주야 아니 아푸겠소. 하여간 좀 더 두고 봅시다. 위생 지도원을 만나거던 나 한테로 좀 보내주시오.≫

≪네.≫

제 3중대장이 나간 후에 미구하여 위생 지도원 박 인옥이 뛰여 왔다.

≪정치 부대대장 동지! 저를 부르셨습니까?≫

≪좀 앉으시오.≫

웬일인지 몰라서 위생 지도원은 의아한 태도로 따른편 의자에 조심스레 걸터 앉았다.

≪제 3중대에 있는 리 춘식 동무는 오늘도 일을 못 나왔다는데 그 동무가 요지음은 좀 어떻소!≫ 하고 한 석천은 새삼스레 물어 보는 것이였다.

≪멀정한데도 오늘 1주일채 나 일을 나오지 않습니다.≫

≪멀정하다니요?≫

≪삼시로 밥 한 그릇씩 딱딱 먹으면서도 현장에는 아니 나오니 말입죠. 그리고 코를 쿨쿨 골며 자다가도 제가 방문을 열고 들어 가면 별안간 아이고 배야! 아이구 골치야! 하고, 엄불어 엄살을 피지 않아요, 진찰을 해보아야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동무 때문에 참 큰일 났어요.≫

하고 위생 지도원은 애생이가 나서 부지중 눈살을 찌푸린다.

≪춘식 동무는 농촌에서만 살다가 별안간 멀리 객지로 떠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집 생각이 나서 그러는 모양같소. 그러니 핀잔을 하지 말고 친절히 대해주되 약을 달라거던 제때에 주시요. 뭐 간식같은 것도 있으면 갖다주구…≫

≪…………≫

≪친절하게 간호를 잘 해주면 저도 사람이지 설마 장창 꾀병을 앓겠소.≫

≪잘 알았습니다.≫

박 인옥이가 처음에 생각하기를 정치 부대대장은 공연스리 리 춘식이에게 지나친 동정을 하는 것 같아서 속으로 불평을 느끼였다. 그런데 차차 그의 말을 들어 보니 지도부의 옳은 립장에서 하는 일이라고 인옥은 인차 돌려 생각하였다. 동시에 그는 자기가 너무 춘식이에게 경솔한 태도로 대해 온 것이 불현듯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정치 부대대장 실에서 나올때는 자기도 모르게 마치 소학생이 선생한테 할 때처럼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위생 지도원은 점심종이 나기 전에 식당으로 달려갔다. 그는 리 춘식의 점심을 탈라하여 벌주전자랑 밥손에 갈라들고 총총히 그의 숙소로 찾아 갔다.

방문을 뚜드리고 들어가니 춘식이는 별안간 이불을 뒤여쓰고 끙! 끙! 앓는 소리를 한다.

≪아이구 골치야, 아이구…!≫

그는 여전히 엄살을 하는 것이 뻔하였다. 그러나 박 인옥은 나오는 웃음을 참고 그의 머리맡으로 가서 한손으로 이마를 짚어보며

≪춘식 동무! 좀 어떠서요?… 열이 그저 좀 있는데요. 자, 점심 자셔요≫. 하고 지성껏 권하였다.

≪아무것도 난 먹구싶지 않아요. 아이구 골치야!≫

리 춘식은 눈도 거들떠보지 않고 연신 신음성을 발한다.

≪골치가 몹시 아파요? 그럼 약을 줄테니 일어나세요. 자 어서—≫

박 인옥은 그의 두손을 툭잡아서 일으켜 앉치려 하였으나 춘식은 그래도 누워있다.

≪날래 회복이 돼야지, 오늘이 벌써 이래째가 아니여요. 그래 대대 지도부에선 여간 념려를 하시지 않는답니다. 국이 식기 전에 어서 자 일어 나세요.≫

점심을 가져 왔다는 말을 그제야 알아 듣고 리 춘식은 두 눈을 번적 떠보다가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지 부수수 일어나 앉는다.

≪건 뭘하러 가져 오셨나요. — 먹구 싶으면 이따 가서 먹을 텐데요.≫

≪다니는게 불편하지 않아요. 날씨도 춥구한데…≫

≪그렇지만 미안해서… 다시는 가져 오지 마세요.≫

≪미안하긴 뭘…≫

위생 지도원은 춘식이가 밥을 다 먹은 뒤에 약 한개를 주었다. 그리고는 그의 방에서 나왔다.

그이튿날 오전에는 정치 부대대장이 사과를 사가지고 리 춘식에게로 위문을 갔었다.

춘식은 방문 밖에서 나는 정치 부대대장의 목소리를 알아 듣고 인차 벌떡 일어나 앉는다.

≪누워 있소. 그래 몸이 좀 어떠오?≫

≪네…괜찮아요.≫

정치 부대대장은 사과가 든 봉지를 그의 앞으로 놓으면서 먹으라고 권하였다.

≪건 뭘하러 사오시나요.≫

하고 리 춘식은 불안한 태도로 대꾸한다.

≪지금도 두통이 나는가… 그럼 약을 먹고 잘 조섭을 해야하오. ——날래 몸이 쾌차해야만 다른 동무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소. 집에는 어머니가 계시다지… 또 누가 있소?≫

≪아주머니(형수≫가 있어요.≫

≪그럼 형님은?…≫

≪형님은——학살당했어요. 후퇴 시기에 미국놈들이 들어 왔을 때 치안대에 붙잡혀서요.≫

≪형님은 당원이였소?≫

≪네. 빨갱이라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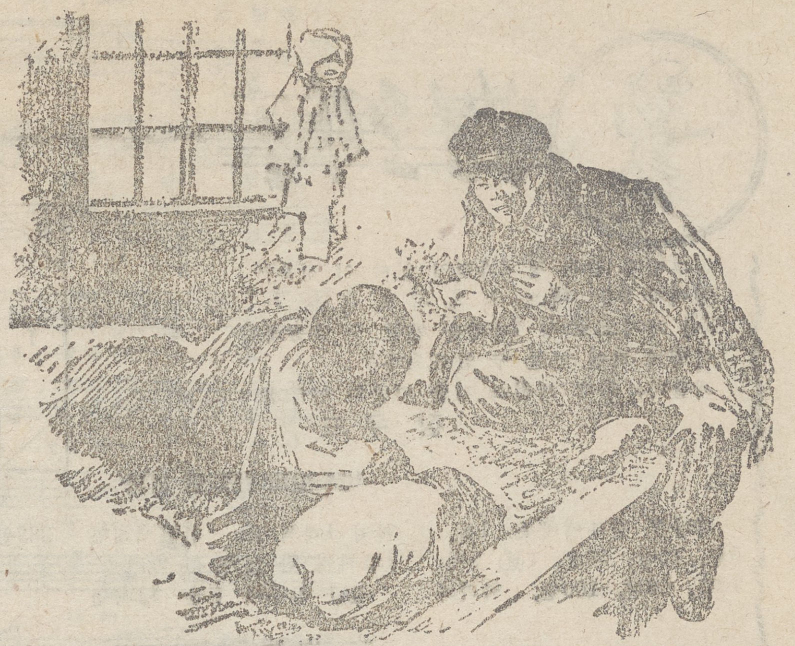
≪음! 춘식 동무는 호주의 책임이 있지않은가. 그런 점을 생각해서라도 동무는 많이 배우고 일을 잘해서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 아니요.≫

≪……≫

≪춘식 동무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또 이렇게 멀리 집을 떠나오기도 처음이라 객지에 있는 것이 고생스러웁고 집 생각도 나겠지만 그러나 우리 대대원들 중에는 동무보다도 더 멀리 저—량강도나 자강도에서 온 동무들이 있구 그동무들 중에도 나어린 사람이 있지않소. 그런 동무들에게 비하면 동무의 집은 아주 가까와서 편지를 하면 어머니께서 만나러 오실수도 있지않소. 하니까 이번에 몸이 낫거던 일을 잘 해야하오.≫

정치 부대대장은 항일 유격 대원들이 일제를 반대하여 15년 동안에 걸쳐서 얼마나 간고한 투쟁을 하였던가에 대해서와 조국 해방 전쟁 때에 민청원 리 수복 박 원진 영웅들은 적들과의 전투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어떻게 고상한 애국주의 정신을 발휘하였는가를 알아 듣기 쉬운 말로 순순히 이야기해주었다. 그때 리 춘식은 잠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위생 지도원은 그날부터 하루에 서너번씩 리 춘식을 방문하였다. 그는 친절히 위로의 말을 하여 주고 날씨가 몹시 추울 때에는 조석을 날라다 주군 하였다.



제 3중대장 리 종호는 저녁마다 그를 찾아 와서 그날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중에도 일을 잘 하는 동무들의 투쟁 모습과 특히는 량강도 삼지연에서 온 김 춘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 주었다.

≪그 동무가 참 일을 잘하오.≫

≪………≫

같은 꾀병쟁이였던 김 춘화가 일을 잘 한다는 말에 춘식이는 속으로 은근히 놀래였다. 그와 동시에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였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춘식은 차차 마음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정치 부대대장 이하 지도 간부들의 간곡한 충고와 격려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았다. 동시에 그는 자기의 과오를 량심의 거울에 비쳐 보았다.— 혁명적 량심의 거울에…

그러나 벌써 십여일 채 꾀병을 앓고 누워 있었드니만큼 그의 열적은 생각은 타성(惰性)을 물고 늘려졌다. 그는 날마다 정치 부대대장을 찾아 가서 이실직고를 하고 사죄를 해야겠다고 별르면서도 냉큼 그것을 실행에 옮길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갔다. 그런데 15일이 되던 날 아침에 정치 부대대장이 세번째로 찾아 왔을 때 그는 용기를 내여서 입을 열었다.

≪정치 부대대장 동지! 저는 그동안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산'골에서 부모 슬하에 철부지로 자라난 저는 사실 여때까지 타관 객지에서 이렇게 오래 동안 지나 보기도 처음이온데…제가 이적 누워 있었던 것은 실상 병때문이 아니라 작구만 집생각이 나서… 그래 우정 앓는 시늉을 해 왔습니다.≫

≪음!≫

정치 부대대장 한 석천은 속으로 그의 개심을 기뻐하였다.

≪그런데 정치 부대대장 동지와 지도부 동지들이 도리여 저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념려를 해주시고 사람이 되도록 일깨워 주시는데 어찌 이대로만 있겠습니까! 저는 어머니 한테 한번 만나보러 오시라고 편지를 하였지만 인제는 오시지 말라고 다시 편지를 부치겠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일터에 나가겠습니다. 제 죄를 한번만 용서 해 주십시요.≫

리 춘식은 눈물을 흘리며 이와 같이 진정으로 사과의 말을 한다.

≪저는 무슨…몸도 아프고 집 생각이 나서 그런건데—≫

정치 부대대장이 미소를 띄우며 너그럽게 대답하는 데도

≪아닙니다. 저는 큰 죄를 졌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봉창으로 저는 일을 더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워서 반드시 한사람 몫의 일'군이 될 것을 맹세합니다.≫

하고 그는 진정에서 울어나오는 자기 고백을 한다.

≪좋소! 하지만 몸이 아직 불편하거던 오늘은 휴식하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럼 나와 같이 이따가 현장에 나가자구.≫

≪네!≫

그날 오후부터 리 춘식은 작업에 달라붙었다. 그는 완전히 개심이 되였다. 일을 잘 나올 뿐만 아니라 정말 그는 세차게 일을 잘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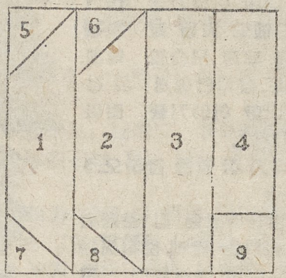
리 춘식이가 작업을 시작한지 사흘 되던 날이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아니 실상은 그가 찾아 온 것이 당연하였다. 그러지 않아도 외아들을 멀리 타관에 보내고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궁금해 하던 차인데 춘식이 한테서 몸이 성치못하다는 편지를 받았으니 얼마나 놀래였을 것이냐? 이에 그는 만사를 제쳐놓고 집을 떠나 오게 되였다. 아들이 병이 난것은 필경 객지에서 고역에 시달리고 먹는 것도 부실하기 때문이였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의 이러한 로파심은 부지중 지난날 일제 시대에 ≪보국대≫를 련상하기도 하였다. 그래 그는 수수를 다려서 엿을 끈것과 흰무리 떡을 해서 보자기에 싸들고 아들을 만나보러 찾아 왔다. 어제 아침에 집을 떠난 그는 신계읍내 못미처의 어느 동리에서 자고 오는 길이였다. 오면서 그는 침교리를 연신 물었다. 그는 다리를 건느는데 여기가 바로 침교리란 말을 듣고 안도의 숨을 내여 쉬였다.

그때 위생 지도원 박 인옥이 교량 공사 현장에 갔다 오다가 그 로인과 마주쳤다. 해는 어느덧 한낮이 되여가는데 이날도 음산한 날씨가 쌀쌀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청년 오락실



그림과 같은 정 4각형이 있다. 이 정4각형에서 9를 빼고 1, 2, 3, 4, 5, 6, 7, 8만 가지고도 정 4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겠는가?

제출자, 황해 제철소 기술 기준화 연구실

장 우 도

8호 오락 문제의 해답

신랑과 신부에게는 1전, 5전, 10전, 50전,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짜리가 각각 1개씩이고 신랑에게만 1전짜리 한 개가 더 많다. 신랑 신부의 돈을 합치면 333원 33전이 된다.

(현) (상) (문) (제)

이것은 어느 작품의 한 구절인가?

(1) 산제비야 날아라.
화살같이 날아라.
구름을 휘정거리고 안개를 헤쳐라.

땅이 거북등 같이 갈라졌다.
날아라 너희는 날아라
그리하여 가난한 농민을 위하여
구름을 모아는 못 올가!
날아라 빙빙 가로세로 솟치고 내닫고,
구름을 꼬리에 달고 오라.

산제비야 날아라,
화살같이 날아라,
구름을 헤치고 안개를 헤쳐라.

(2) 박 성운은 몹시 히스테리칼하여진 모양으로 피'대를 올려 가지고 합창을 한다.

천년을 산 만년을 산
락동강! 락동강!
하늘'가에 간들
꿈에나 있을소냐—
잊힐소냐—아—하—야

노래는 끝났다. 성운은 거진 미친 사람 모양으로 날뛰며, 바른팔 소매를 걷어 들고 강물에다 잠그며, 팔에 물을 적셔 보기도 하며, 손으로 물을 만지기도 하고 끼얹어 보기도 한다.

—8호 현상 문제와 당선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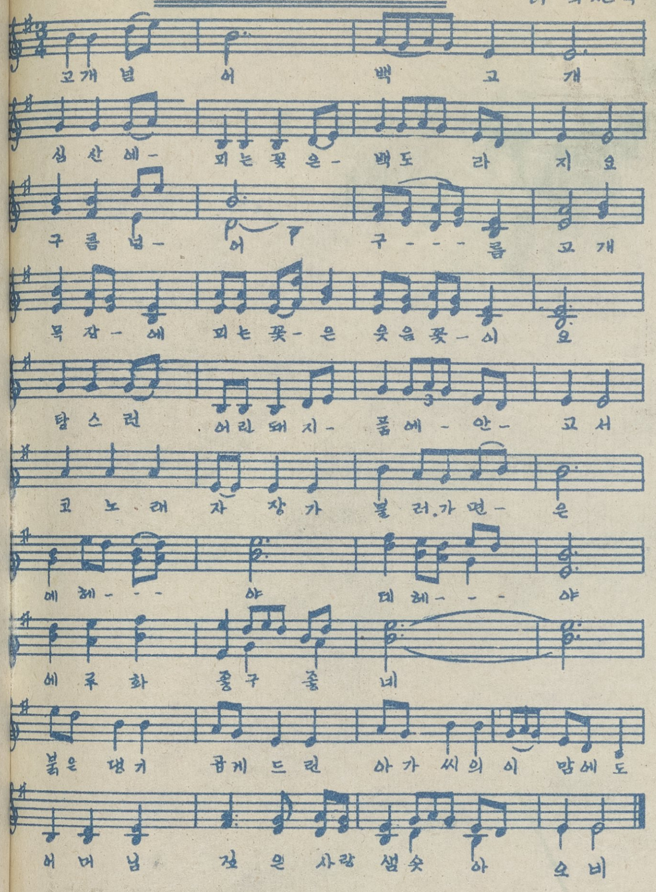
(1) 최 서해 작 단편 소설 《탈출기》
(2) 박 팔양 작 시 《진달래》

강원도	리 옥례	평북도	리 숙만
황남도	리 난호	평양시	윤 영식
자강도	김 경창	함남도	신 유숙
평남도	한 동하	조선 인민군	최 응삼

목장의 아가씨

보통 속도로

리 종률 시
리 혁선 곡



2. 공장에 가신 형님 선반기 새끼쳐서 신문에 나고요
우리 돈사 똘똘이는 방울 달고 재넘에로 세간을 나네
언제나 까불대여 먹성이 좋더니
오늘은 쫄랑쫄랑 령넘어가네

에헤야 데헤야 에루화 좋구좋네
날마다 도야지떼 산파들에 늘어나니
아가씨 일'손엔 자랑도 많네

3. 풀과 고기 바꾸라신 수령님 말씀따라 부지런한 우리
앞산은 칡산이요 뒤'산은 둥실둥실 호박'골일세
한해에 세배는 문제도 없어
우리의 두 손은 약손이라네

에헤야 데헤야 에루화 좋구좋네
우리의 새살림 락원으로 꽃피는
우리는 부지런한 살림'군이죠



